

# 주체조선을 옹위하여

더모트 하드손

# 주체조선을 옹위하여

더모트 하드슨

# 차 례

# 서　　론

세계사회주의의 보루이며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고향인 극동에 있는 완전히 자주적이며 반제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이 악랄한 비방중상을 당하고있는 나라는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비방은 그 어느 누구의 기준을 초월한 가장 극단적인것이다. 거짓말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게 되면 누구나 그것을 믿게 될것이라는 파쑈도이췰란드의 선전상이였던 요세프 겝벨스의 《격언》은 서방제국주의선전자들에 의하여 그 《효력》이 나타나고있다.

서방과 남조선보도매체들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비방은 이 나라의 최고지도부와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대한 비방과 공격이 진행되는속에 공화국에서의 생활의 모든 측면들에 대하여 가장 너절하고 비렬하게 진행되고있다. 그 대부분은 체계적인것이다. 그 도수도 상당히 비정상적인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개혁》과 《개방》을 할것이라고 주장하는속에, 다른 한편에서는 공화국이 《붕괴》될것이라고 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있으며 공화국이 가장 강경한 《쓰딸린주의》국가라고 하는 등 이러저러한 선전은 량립될수도 없고 또 모순적인것이다. 이것은 반공화국선전자들이 자기들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있는지 모르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 그리고 우익분자들로부터만이 아니라 이른바 좌익적인 지위나 최신자유주의적 지위에서 공화국을 공격하는 제국주의나라들의 소위 《좌익》계 인

물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고있다.

이러한《좌익》계 인물들은 대체로 자본주의사회의 압박받는 근로인민의 어렵고 비참한 생활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편안하고 유족하며 중산계층의 생활을 누리고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설사 그들자신이 《반제적》이거나 《좌익》적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미제국주의의 악선전과 심리전을 도와주고있다. 사실상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계화》를 지지하고있으며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개혁》과《개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개혁》과 《개방》은 그것들이 세계의 그 어느곳에서나 초래한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독소이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와 그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미중앙정보국의 로임지불명부에 올라있는 일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무지한 개별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파쑈적인것》으로 중상당하고있다고 흑백을 전도하고있다.

지난 랭전시기에 특히 서방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은 사회주의나라들, 특히 이전 쏘련을 공격하는 반공선전업을 고안하였다. 현존하는 사회주의를 헐뜯어 빈곤하고 짓밟히고 얽매인 사회계층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영향력을 가로막고 서방인민들속에서 이전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나라들의 사회제도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들과 《두뇌진》 그리고 통신사들이 조직되였다. 매일과 같이 사람들에게는 식량난과 반대자들 그리고 망명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허다하게 들리였다. 이전 쏘련붕괴이후 이 기업은 필요이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없는것으로 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에 와서 재생되였으며 그의 목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의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있는 엔케이 뉴스(이 유령조직은 이전 미군과 이전 미중앙정보부성원들을 자기의 직원들로 가지고있다)와 남조선《통일부》(실제상 반통일부)의 자금후원을 받고있는 이른바 《두뇌진》들과 같은 이러저러한 유령조직들이 있다.

영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비방은 말그대로 매일과 같이 진행되고있으며 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고있다. 이슬람교테로분자들이 끔찍한 폭력행위들을 감행하고있을 때 《그들모두가 다 같은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슬람교도들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과 친이슬람교압력단체는 시위를 하고있다.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피바다우에 생겨난 비합법적국가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이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에게 그 어떤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다 해도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사회적여론을 조장시키는 친이스라엘압력단체와 친유태복고주의압력단체를 매개 나라에 가지고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옹위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 령토에 외국군대도 주둔시키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 자기의 무력도 파견하지 않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자주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나라이기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의 성원국이 아니다. 평양에는 외국이 전적으로 소유한 은행도, 맥도날즈 등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가 하고싶은 소리를 하고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하는 나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전 영국수상 죤 메이죠가 말한바와 같이 오늘의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고 실질적으로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진정한 자주권》을 가진 나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분쟁도, 무질서도, 분파도 없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범죄와 테로가 없는 나라이다. 누구나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당에 하나의 사상과 공동의 목적으로 단결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붉은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고있는 진정한 사회주의나라이다. 수정주의와 반사회주의의 맹공격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고있다. 더우기 60 여년간의 제재와 봉쇄 그리고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공민들로부터 한 페니의 세금도 받지 않고 무료교육제와 무료주택배정, 그리고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인민복리정책을 리행하고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인류의 가장 선진적인 사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비방은 반사회주의적이며 인종주의적인것외에 그 본질상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헐뜯고 서방나라들에서 그에 대한 지지를 가로막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바로 이것이 이른바 《좌익》계 인물들과 수정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과 배신자들이 주체조선에 대한 끊임없는 비방전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지배계급과 손을 잡고있는 리유들중의 하나이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대외문화련락위원회의 초청으로 1992 년 5 월부터 인민조선을 방문하면서 나는 자신이 직접 현실을 체험하였다. 나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나라 보도매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전하는 모든것이 완전히 거짓이

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미 2011 년에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근거없고 공허한 수많은 행위들을 반박하기 위하여 《허위라는 거울의 리면》이라는 도서를 완성하였다. 오늘날 나는 제국주의의 허위와 비방으로부터 인민조선을 옹호하는 실질적인 다른 한 도서를 쓸것을 결심하였다.

이 도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성을 떨어뜨릴것을 목적으로 제국주의보도매체들이 빈번히 류포시키는 누거리 한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의 제도와 령도에 대한 사상적, 정치적공격들을 론박하고있다.

이 도서가 인민조선과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보다 큰 리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리라는것이 나의 소박한 희망이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단결하여 주체조선을 옹위하자!

박사 더모트 하드슨 2017 년 8 월

# 제 1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강 화 발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더 잘 알자면 조선의 력사에 대하여, 다시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떻게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였는가에 대하여 아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산이며 완전히 주체적이며 자주적인 국가이다.

조선의 사회주의국가는 이전 쏘련이나 중국의 사회주의의 복사판도 아니며 또 그 어느 은인이 조선인민에게 가져다준 선물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인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에로의 자기의 길을 개척해나가고있으며 쓰딸린이 내놓은것과는 다른 자기식의 사회주의건설리론을 발전시겼다. 그런것으로 하여 서방보도매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반복하는 표현인 《쓰딸린주의적》인 국가가 아니다.

동유럽에서는 이전 쏘련의 붉은 군대가 파시즘과 나치스도이췰란드의 강점으로부터 많은 나라들을 해방시킨 이후 이 나라들에 인민정권이 수립된것으로 하여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는 이전 쏘련과 붉은 군대와 련관되여있었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은 맹목적으로 이전 쏘련을 본땄다. 하기에 모스크바에 비가 내리면 동부베를린사람들이 우산을 들고다녔다는 말도 있었다. 결국 《개혁》과《개편》을 받아들인 현대사회민주주의로 인한 질병으로 신음하던 이전 쏘련이 1991년에 붕괴되였을 때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도 하나둘 뒤따라 무너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와는 다르다. 조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의 20 성상의 장구한 항일무장투쟁의 결과 해방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호상경제협력리사회》(쎄브)의 성원국으로도 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중심의 독특한 조선식 사회주의제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들과 기타 다른 근로인민에게 있다》(4 조)라고 지적된바와 같이 공화국에서 사회의 주인은 인민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기관은 기본적으로 중앙주권기관과 지방주권기관으로 구성되여있다. 중앙주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이며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다. 지방주권기관은 각급 인민회의이다.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선전과는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당제국가》나 《일당제독재국가》가 아니다. 사실상 공화국에는 3 개의 정당, 다시말하여 집권당인 조선로동당과 함께 조선사회민주당(이전의 조선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이 있다. 이 3 개당들은 최고인민회의에 대의원을 보내고있다. 정당들외에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과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과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같은 대중조직들이 있다. 조선로동당과 기타 2 개 정당들, 그리고 대중단체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통일되여있다.

공화국에는 여러 행정기관들이 있다. 여기에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들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내각이며 지방행정기관들은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들이다. 내각은 공화국정부이다.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최고기관의 총체적국가관리기관으로서 내각은 법과 포고, 결정과 지시들을 집행하며 국가관리에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지도를 한다.

지방주권기관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시(구역)인민위원회, 군인민위원회들로 구성되여있다. 이것들도 역시 행정집행기관들이다. 사람들은 인민반을 통하여 자기들의 지역생활을 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제도는 부유층과 특권층들의 리해관계를 옹호하는 자본주의나라법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검찰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주의법의 준수와 집행을 지도한다. 여기에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시(또는 구역)검찰소, 군검찰소 그리고 특별검찰소가 있다. 중앙검찰소는 모든 사업을통일적으로 지휘한다.

재판기관은 사회주의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재판기관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또는 구역)재판소, 그리고 특별재판소가 있다. 매개 재판소에는 재판관과 자본주의서방과는 다르게 선거되는 인민참심원들이 있다. 중앙재판소는 나라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인민조선의 대외정책의 3 대기둥은 자주, 평화, 친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고립되지도 않았으며 또 《고립주의국가》도 아니다. 공화국은 100 여개가 넘는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있으며 많은 국제행사들을 주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는 외국손님들은 언제나 따뜻한 환대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이며 또 명백히 국제주의적인 국가이다.

주체조선은 타락하고 부패한 제국주의고용자들이 떠들어대는

《파쑈적》이며 《봉건적》인 국가라기보다는 진정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이다. 이것은 조선인민자신이 선택한 진정한 사회주의이다.

인민조선 혹은 주체조선으로 불리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1948년 9월 9일에 창건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영원한 국가주석이십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창건은 가렬한 항일무장투쟁의 결과에 이룩된 류례없는 국가의 탄생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진행된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의 결과 창건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들에 수립된 인민혁명정부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가 조직되였다. 1946년 8월 공산당은 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으로 되였으며 1949년 6월에는 남북조선로동당들이 합당하여 조선로동당으로 되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새 사회건설을 비상히 다그쳐나갈수 있는 지도력량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해방후 나라의 도처에는 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였다. 이에 토대하여 새로운 정권형태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2월 8일에 수립되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며 조선인민의 해방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조선혁명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정권수립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사회주의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1946년 11월 3일 조선인민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빛나는 승리에로 결속하신데 이어 1947년 2월 평양에서 북조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대회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따라 대회에서는 최고주권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를 창설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중앙정권기관을 조직하기 위한 제1차회의를 소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조선인민이 해방직후부터 정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해온 력사적과정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실시한 모든 시책들과 그 집행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인민의 총의로 조직된 북조선인민회의앞에 정권을 위양한다는것을 선포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에 따라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해방후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새 조국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조

선인민정권의 최고집행기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벌어진 무장투쟁의 결과 조선이 1945 년 해방되였을 때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앞에 나선 중요과업들중의 하나가 일제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선혁명은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단계, 다시말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놓여있습니다.》

정권문제를 해결한데 이어 조선인민은 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여러 민주개혁들이 실시되였다. 그것들을 본다면 토지개혁법령, 산업, 운수, 통신, 은행들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남녀평등권법령이다.

토지개혁은 지주들의 힘을 꺾어놓은 특별히 근본적이며 대담한 조치였다. 5 정보이상의 지주들의 토지는 무상으로 몰수되였다. 이러한 류형의 개혁은 실제상 조선에서만 벌어질수 있는 개혁이였다. 토지개혁은 참으로 놀라운 속도로 단 30 일동안에 끝났다.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은 《봉건주의》에 대하여 말하고있지만 봉건사회에서는 조선에 있는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들과 같은 기관들이 존재할수도 없었을것이며 또 조선로동당도 존재하지 않았을것이다. 《프리딕쇼너리 온라인》은 봉건주의는 《모든 토지를 령지로 가지고있으며 또 귀족과 신하와의 관계를 초래하였으며 신하의 례와 령주의 신하의 법적, 군사적복무, 그리고 몰수로 특징지어진 9 세기부터 15 세기경까지 존재한 유럽의 정치경제제도》라고 간단히 규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봉건적지주제도는 력사상 가장 근본적인 토지개혁의 하나인 1946 년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청산되였다.

《봉건주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와 투쟁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있을뿐만아니라(봉건적생산관계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생겨나게 되였으며 또 언제 청산되였는가하는) 맑스주의에 대한 리해가 실제상 부족한 사람들이다.

동시에 일제의 낡은 반동통치기구들이 완전히 격파당하였으며 사법, 교육 및 문화사업에서의 민주화를 위한 대책들이 취해졌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해방후 짧은 기간에 북조선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1932 년 4 월 25 일에 창건된 조선인민혁명군은1948년 2월 8일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으로 발전되였다.

1948 년에 이르러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는것은 조선혁명과 조선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하고도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그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남조선에서 이른바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해나선 엄중한 사태와 관련되여있었다.

미국은 조선에서의 쏘미량군의 동시무력철수와 조선인민자신에의한 조선문제해결에 대한 조선인민의 공정한 요구를 배격하였다.

미국은 쏘미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1947 년 가을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가 저들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이른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라는것을 조작해냈다. 그리고 그 감시밑에 조선에서 이른바 《선거》를 실시하고 저들의 앞잡이들로 괴뢰정부를 조작하려고 획책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이 음흉한 책동이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견결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1948년 2월 또다시 《유엔소총회》에 강요하여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하고 괴

뢰정부를 세울데 대한 비법적인 결정을 채택하게 하였다. 당시 미국무장관이였던 마샬은 《유엔소총회》에서 이른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전조선선거의 감시가 불가능하다면 위원단이 접촉할수 있는 범위의 조선내 지역(즉 남조선)에서만이라도 단독〈선거〉를 실시》하여 단독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1948 년 5 월 미국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감독하에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하고 리승만을 괴수로 하는 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민족분렬의 위기는 심각해졌으며 통일되고 민주주의적이며 자주적인 나라를 건설하려는 조선인민의 노력은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이러한 엄중한 정세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반도에 하루빨리 통일국가를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자주성을 이룩하기 위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남조선에 있는 애국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련합을 실현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1948 년 3 월 9 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 25 차회의에서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발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기하신 남북련석회의소집에 관한 소식은 내외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켰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기하신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는 전체 조선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서 1948 년 4 월 19 일부터 23 일에 걸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북과 남의 56 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5 명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당시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단합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남조선에서 실시하려는 망국단독선거를 저지파탄시키며 통일적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4 월남북련석회의는 참가자들의 구성이 복잡하고 서로의 정견과 신앙이 달랐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통일과 통일적중앙정부수립로선의 정당성과 광폭의 통일전선정책의 무비의 견인력, 그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 애족의 리념과 한없이 넓은 도량으로 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결속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진행된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련석회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인 이른바 《단선단정》책동을 짓부시고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한 력사적인 회합이였으며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을 위한 폭넓은 사회정치지반을 마련한 의의깊은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련석회의를 통하여 전민족의 단합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을 미제의 이른바 《단선단정》조작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가 남조선에서 끝내 단독선거를 강행하여 비법적으로 괴뢰정권을 조작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조건에서 1948 년 4 월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협의회에서 전민족적인 공동투쟁을 위한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미제의 단

독정부조작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이른바 《단선단정》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시였으며 전민족의 애국력량이 반미구국항전에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8 년 《신년사》와 《북조선로동당 제 2 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기본방침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업들을 밝히시면서 당면하여 미제의 이른바 《단독정부》조작음모를 저지파탄시키며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다그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토대우에서 1948 년 8 월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1948 년 8 월 25 일 조선의 북과 남 전지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온 민족이 그에 흥분과 열의로 대답했다. 북조선에서는 99.97%의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가하였다. 남조선에서는 가혹한 반동적인 탄압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가하였다. 결과 북과 남의 572 명의 각계각층의 후보자들이 선거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 1 기 회의가 1948 년 9 월 평양에서 진행되였으며 9 월 9 일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이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중앙정부를 구성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그리고 온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 속에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 내각수상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일찌기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조선혁

명의 새로운 앞길을 개척하시였으며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대전을 벌리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여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신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조선인민이 받아안은 대통운이였고 조선민족의 최상의 영광이였으며 조선의 더없는 긍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8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 1 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내외정책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지키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자위적인 국방력을 강화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세워진 유일한 합법적국가였으며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 제시하신 주체적인 건국로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지난날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조선인민을 자주독립국가의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하고 세계지도우에서 빛마저 잃었던 조선을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자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로 되게 한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다.

본질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에 의하여 창건된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국가이다.

한편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작된 괴뢰정권이다. 세계는 북아일랜드와 이스라엘, 북부끼쁘로스 등과 같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수많은 국가들에 대하여 알고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조선은 가장 한심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다음에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국가건설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강화발전시키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현명하게 이끄시여 자주시대 당건설과 국가건설, 혁명무력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민을 자주적인민으로 키우시여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국가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력사의 온갖 풍파와 소용돌이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자기의 위력과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참다운 본보기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72년 4월 주석제라는 국가기구직제를 새로 내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국가의 모든 법령, 정령, 결정들이 주석의 명의로 공포되게 할데 대한 명철한 발기를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새로운 발기에 의하여 1972년 12월 27일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는 국가기구체계가 국가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규제되였다.

1972년사회주의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는것을 규정하였으며 국가의 최고직책으로서의 주석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였다.

1972년사회주의헌법의 채택으로 새로운 국가기구체계가 확립된것은 조선의 국가건설사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새로운 국가기구체계가 확립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가주석으로 추대됨으로써 그이의 권위와 위신이 백방으로 보장되게 되였으며 국가에 대한 그이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한 기구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운 국가기구체계의 확립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높이 모실수 있게 하신것은 공화국을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충실히 받들어나가는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되게 한 특기할 사변이였다.

1990년대 말엽에 이르러 조선에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내오는것이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당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북의 붕괴와 종말이 시간문제》라고 떠들면서 군비를 확장하고 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

리고있었고 재침열에 들뜬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이른바 《평화헌법》수정과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떠벌이면서 여기에 합세하였다. 적들의 발광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해야 하며 국방위원회가 국가기관들가운데서 기본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을 통하여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을 통하여 국방위원회가 국가기구체계에서 두번째 순위에 놓이도록 하시였다.

종전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기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의 다음 순위에 놓여있었다. 해당 기관에서 올린 헌법수정보충안에도 국가기구를 규정한 부문에서 제1절이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로 되다보니 국방위원회는 자연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다음 차례에 놓이게 되였고 그 선거와 권한, 명령과 결정집행에 대한 문제들도 이 차례를 따르게 되였다. 당시 해당 기관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설적인 주권기관인것으로 하여 두 기관을 분리할수 없는것으로 여기고있었다. 국가기구체계에서 국가기관들의 순위는 국가기관들의 지위와 권능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앞선 순위의 국가기관일수록 그만큼 국가기구체계에서 지위와 권능이 높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빛나는 예지와 뛰여난 정치적

식견으로 국방위원회의 순위를 올릴 명철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제 1 절에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함께 들어가있는것을 갈라서 제 1 절을 최고인민회의로, 제 2 절을 국방위원회로, 제 3 절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국방위원회는 인민대표제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다음가는 높은 지위와 권능, 다시말하여 국가기구체계의 중추로서의 뚜렷한 지위와 권능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을 통하여 국방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사를 중시하고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기구조직에서 국가방위와 국가관리권능을 가르고 국방을 최우선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라고 되여있던것을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라는 내용을 더 첨부하여 수정보충된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로 되도록 하시였다.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인 동시에 전반적국방관리기관으로 되였다는것은 그것이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뿐아니라 군수공업을 비롯한 국방사업전반에 대한 조직지도권까지 행사하는 비상히 높은 법적지위를 차지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1992 년과 1998 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일부 수정되였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수정은 2009 년 4 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년차회의에서 진행되였다. 헌법 100 조에서 처음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고 밝히였다. 1998 년의 기본법에는 없었던 새로 보충된 103 조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하며 국방분

야의 중요간부들을 임명하고 교체하며 외국들과의 가장 중요한 협정들을 공인하거나 파기한다.》라고 지적되여있다. 대사령과 비상사태령을 내는것도 그의 권한에 속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방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하여주심으로써 국방위원회는 순위에서뿐아니라 규제내용에서도 국가기관들가운데서 기본으로 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가 어린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는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새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의 채택과 더불어 자기의 독특한 모습을 세상에 나타냈다.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의 확립은 국가정권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실현의 위력한 무기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법제정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법제정사업을 강화하는데 깊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수정보충이 진행되였다. 1992 년 4 월 9 일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제 3 차회의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헌법이 수정보충되였으며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두번째로 사회주의헌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이 가운데서 1998 년에 진행된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은 조선의 사회주의헌법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여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가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로 조선인민이 당한 민족최대의

국상,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더욱 악랄해진 반공화국압살책동,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하여 조선혁명앞에는 력사상 류례없는 엄혹한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모든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정치사상적, 군사적위력이 백배해졌으며 강성국가건설에로 비약할수 있는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변화된 현실을 깊이 통찰하시고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는데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생존시와 다름없이 주석이라는 존칭과 함께 천만년 높이 받들어모시도록 하시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조선에서 주석은 단순한 국가기구직제가 아니다. 주석이라는 직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서거하시기전까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시는 과정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조선의 당과 국가, 인민이 삼가 드린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헌법에 서문을 새롭게 설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가라는것을 법화하도록 하시였다.

일부 다른 나라 헌법들의 서문을 보면 주로 국가건립과 발전의 력사를 개괄하거나 국가리념을 지적하고있다. 그러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헌법 서문에서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법화하고 그이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조선인민의 의지를 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공화국이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가라는 사상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필승불패의 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가건설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권력기관은 이전의 국방위원회인 국무위원회이다.

2016 년 6 월 29 일 최고인민회의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하고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하며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하고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하며 특사권을 행사하고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하며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하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명령, 국무

위원회의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우며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지난 6 년간 조선의 당과 국가와 군대, 그리고 인민을 승리에로 령도하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신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보루로 더욱 굳건히 다져졌으며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길에는 오늘 끝없이 밝은 전도가 펼쳐져있다.

세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심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비약하는것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 제2장.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리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전례없는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또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여왔다.

## 제1절. 위대한 수령을 모신 나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령도하시여 조선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의 진보적사상의 절정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다. 생애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투철한 반제, 반수정주의투사이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거장이시였으며 정치원로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대중중심의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시여 조선을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만드시였다. 서거한 피델 까스뜨로가 말한바와 같이 《**김일성**주석은 가장 저명하고 탁월하고 영웅적인 사회주의 수령들중의 한분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체계화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건설하시였다. 백두산의 또 한분의 장군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60 년에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시였으며 1960 년대말에 선군정치를 시작하시였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이전 쏘련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때 조선이 사회주의 붉은 기발을 더 높이 추켜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책변화》와 《개혁》, 《개방》, 지어는 공화국의 붕괴를 꿈꾸어오던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좌절시키였다.

특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주체의 사회주의핵보유국으로, 인공위성발사국으로 전변시켜주시였다. 진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도약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광폭정치, 인덕정치를 펼치시여 이민위천을 실천에 옮기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쪽잠으로 잠시간을 줄이시고 또 줴기밥을 드시며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구주위를 17 바퀴나 돈거리와 맞먹는 669 847km 의 거리를 달리시며 나라의 14 290 여개 단위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서거하시였다.

이른바 《좌익주의자들》은 부르죠아조직과 야합하여 《권력의 집중》과 《세습적원칙》에 대하여 떠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악의에 차서 헐뜯고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2010 년 9 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 3 차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되신 사실을 무시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수백만명의 당원들을 가지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부분의 가정들에는 조선로동당원들이 있다. 근본적으로 놓고 볼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후계자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추대한것은 수많은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인 결정에 따른것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군주정치와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다.

그후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012년 4월 12일 조선로동당 제 4 차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 제 1 비서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016 년 6 월 29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다.

따라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인민적인 령도자, 인민이 선택한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이다.

여기에는 군주정치와 대비해볼것이 없다. 《영국의 국가수반이 선출되지 않은 세습적립헌군주인것으로 하여》 영국의 지배층이 《세습적인 원칙》에 대하여 비난하는것은 위선적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최고인민회의와 시인민회의와 같은 정권기관들은 직접적이며 평등한 투표에 의해서 선거된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선거되는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투표를 받지 못한 사람도 대통령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복잡한 《선거인단제도》에 의해 선거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영국과 같이 선출되지 않은 하원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선거에 참가할수 있는 나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17 살이다. 일반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선거참가률은 (자본주주의나라들에서 참가률은 60-70%, 지방선거들에서는 지어 20%이하인것에 비하여) 거의 100%이다.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선거는 사람들 그 누구나 참가하여 각급 선거장들에서 춤을 추는 그야말로 단합과 화목의 과정으로 되고있다. 영국과 같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선거에서의 투표는 부유한 사람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이른바 《재잘거리는 계층》만을 위한것이고 빈민들은 이에 관심을 두고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는 제외되고 도외시되고있다. 소위 서방민주주의와는 달리 유권자들은 대표자들이 자기 사업을 원만히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들을 소환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절대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로 조선을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는 공장들과 농장들, 수산사업소들과 지어 평범한 가정들의 집으로도 이어지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하에서 수령의 역할은 자본주의사회의 정치인들과는 상당히 구별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인들은 대독점자본회사들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실지 결정은 국회가 내린다고 하기 보다는 미지의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들에 의해 시의회의 비밀실에서 내려진다. 결국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회와 《법규정》은 부르죠아독재를 위한 겉치레,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두말할것 없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계승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계승문제가 옳바로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 사회주의는 자기 궤도에서 탈선하게 되거나 좌절되게 된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와 사회주의진영이 남긴 교훈이다.

이전 쏘련에서 쓰딸린은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한 위대한 수령으로 찬양되고 숭배되였다. 지어 영국인민들도 쓰딸린을 《져우 아저씨》로 불렀다. 그러나 쓰딸린에게는 후계자가 없었던것으로 하여 그가 서거하자마자 수많은 쓰딸린의 업적들을 깍아내리고 파괴한 흐르쑈브가 재빨리 령도권을 쥐게 되였다. 자기 나라를 반수정주의적국가이며 세계프로레타리아혁명의 요새로 자처해온 중국도 1976 년 모택동이 서거한 후《개혁》과《개방》을 택하였다. 엔베르 호쟈가《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나라》이며 완전한 반수정주의국가라고 자처하던 알바니아에서도 라미즈 알리아가 엔베르 호쟈를 계승한후 사회주의가 붕괴되였다.

정책들을 빈번히 철회하거나 변화시키며 좌왕우왕하는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상과 령도를 훌륭히 계승해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한 유일한 사회주의나라이며 그러한것으로 하여 응당 찬양을 받아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선대수령들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계신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령도자가 지녀야 할 첫째가는 풍모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혁명의 령도자가 자기의 사명에 맞게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선대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투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진리로 여기시고 그 위대성과 정당성을 깊이있게 론증하는데 기본을 두고 사상리론활동을 벌려나가고 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제시하신 모든 사상과 리론들, 원리와 명제들을 불멸의 진리로 받아들이는것을 철칙으로 삼고 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그분들의 존함과 결부시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을 절세위인들의 존함과 결부시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해주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해주신것은 **김정은**동지의 사상이 철두철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의 계승이며 그 심화발전이라는것을 뚜렷이 증시해주고있다.

일찌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해주시고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태양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주시였다. 2012년 2월 1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리시였다.

2012년 4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대표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최고인민회의

제 12 기 제 5 차회의에서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 돐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만수대창작사, 자강도,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라선시를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억년 드놀지 않는 태양민족의 정신적기둥, 신념의 기둥을 튼튼히 세워주시였다.

공화국의 최고훈장과 최고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김정일**훈장, **김정일**상,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이, 조선로동당력사에서 처음으로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제정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6 월 19 일과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선군절을 뜻깊게 기념하게 됨으로써 그이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세세년년 더욱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2015 년 2 월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이 회의는 세상이 열백번 뒤집히고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려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정치적사변이였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100% 계승하며 수령의 생전의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나가시는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특징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내여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고계신다.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에 정통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를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심오한 사색과 정력적인 탐구로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에 새로운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 대에 벌써 저술활동을 시작하시였는데 그 폭과 심도는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는것이였다.

력사에는 생전에 유명한 글로서 이름을 남긴 위인들이 적지 않다. 로동계급의 수령들이였던 맑스와 엥겔스, 레닌은 국제로동운동과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명저로 당대에 이름을 날렸는데 그때 그들이 처음 글을 발표한것은 다 20 대 중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 대의 어린시절에 투철한 민족자주적립장에서 조선의 지정학적특징을 독창적으로 분석평가하시였다.

1993 년초에 한 일군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미제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화약내 짙은 전쟁연습을 벌리고있는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대국들에 둘러싸여있기때문에 정세가 항상 복잡해지고있는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가 대국들에 둘러싸여있다는 말은 대국들의 짬에 끼여있다는 말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한것은 우리 나라가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있거나 짬에 끼여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가 대

국들을 움직일수 있는 전략적요충지를 타고앉아있기때문이라고 확신성있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대후반기에 벌써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군술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론문을 심오한 대작으로 집필하시여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몸가까이에서 보좌하시던 나날에도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다.

특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하신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련속 발표하시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정당성, 생활력을 깊이있게 론증하시고 새로운 명제와 원리들로 풍부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주의 원칙, 선군의 원칙,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은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이라는 철리를 확증하시여 선군사상을 더욱 빛내이시였으며 인민군대가 당의 령도따라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억척의 지지점이 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여 선군후로사상을 보

다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소중히 간직하시고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숭고한 애국주의를 **김정일**애국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내세우시였다. 그리하여 **김정일**애국주의가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생활적으로, 감정정서적으로 뿌리내려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발양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시하고 절대화할데 대한 사상, 일군들이 대오의 맨 앞장에서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척후병, 기관차가 될데 대한 사상,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될데 대한 사상들을 제시하시여 주체의 령도방법을 새로운 높이에로 심화발전시키시고 그 견인력과 생활력이 전례없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 절세위인들의 존함과 더불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되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의 위력한 사상적기치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산을 굳건히 지키고 고수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광폭정치를 펼치시여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 불패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사회주의의 존재와 발전의 생명선이며 그 불패성의 원천이다. 오늘날 일심단결이 사회주의조선

의 본질적특징을 표현하고있지만 그것은 결코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을 한품에 안아 보살피시며 조선혁명의 일심단결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고계신다. 항일의 로투사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의 건강으로부터 육아원, 애육원 어린이들의 앞날에 이르기까지 헤아리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신다.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최전연초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병사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이시다.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발걸음높이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고계신다.

일찌기 총대와 깊은 인연을 맺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함께 선군혁명의 길을 걸으시며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계신다.

조선의 존엄을 만대에 빛내이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탁월한 군사적지략과 예지로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최정예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하시였으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력을 굳

건히 다져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고계신다. 선군의 위력은 인민군대의 위력이며 군력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모든 분야에 구현하도록 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시험을 포함하여 5 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하여 자랑스러운 자주적인 사회주의핵강국으로 되였다.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군사기술적변화들을 리해심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력한 핵억제력, 전쟁억제력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는 강위력한 보검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70 돐을 경축하여 2015 년 10 월 10 일 **김일성**광장에서는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침략과 전쟁으로 제 몸집을 비육시켜온 횡포한 미제와 직접 맞서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안기고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제재와 봉쇄도 강행돌파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단합된 힘은 원쑤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으며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당당히 선

언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에서는 금시라도 시뻘건 불줄기들을 내뿜으며 원쑤의 아성을 단숨에 짓뭉개버릴듯 무쇠철갑의 대오들이 지축을 울리며 나아갔다. 또한 도발의 본거지들을 섬멸의 조준경에 잡아넣고 무자비한 불뢰성을 터칠 포탄들이 만장약되여있는 강철포신들과 로케트들이 나아갔다. 각종 포와 장갑차, 땅크, 무인타격기, 전략로케트를 비롯하여 자기 식의 최첨단무장장비들과 초정밀타격수단들은 침략자들이 목숨보다 소중한 사회주의조국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무자비한 불벼락, 상상할수 없는 강력한 타격을 안길 만단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 열병식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누리에 위용떨치는 자기의 위력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오늘 핵무기와 로케트를 비롯하여 조선의 강력한 군사력은 공화국이 존재하기 위한 담보로 되고있다. 미국이 조선의 위성이 군사적성격을 띠고있다고 하면서 떨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일대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고계신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계를 앞서나가는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지위에까지 올려세워 그 존엄과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런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조선인민이 행복을 누리게 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 하나의 건축물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도록 하는 특출한 조직적수완과 무비의 실천력으로 강성부

흥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그이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숭고한 애국애민의 사랑과 진취적이며 혁신적인 안목으로 최상의 목표와 과학적인 설계도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헌신의 로고를 다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까운 앞날에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강국건설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것이다.

## 제2절.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기초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이다. 조선은 주체로 살아숨쉬고있다. 주체는 조선에 힘을 주고 모든 승리를 가져다주는 생명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인류철학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철학적사유의 중심에 놓으며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모든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를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세계의 단순한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주인, 지배자로 내세우고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세계관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진수는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다.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고있는 이 정의는 사람자체가 가지고있는 본질적특성에 대한 철학적해명에 기초하고있는 새로운 정의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해명하는것을 중요한 철학적과제로 내세우고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

라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혔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지배와 순종에 대하여서도 타협을 모르며 죽음도 각오한 투쟁으로 존엄과 권리를 지켜낼수 있다는것은 장구한 인류의 투쟁력사에 새겨진 진리이다.

결국 자주성을 인간의 생명으로 내세운 주체사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온갖 투쟁과 생활도 다 자주성에 귀착시켜 풀어나가는 철저한 자주의 혁명사상이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가치를 빛내이는 가장 정확한 리치를 밝힌 사상은 론의할 여지없이 인간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사상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는 사상이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은 모든 사고와 활동에서 사람의 리익과 역할을 중시할데 대한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다.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기 위한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일반적방법론인것만큼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계를 대하는것으로 될 때 과학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확립된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며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다.

주체사상이 내세우는 사람의 리익은 개인적치부나 출세와 같은 탐욕적인 리익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

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근본리익, 인민대중의 리익이다.

이것은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보고 대할데 대한 방법론이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해 철저히 복종시키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그들의 자주적리상을 참답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가장 인민적인 철학적방법론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사람,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원리를 독창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에는 자연의 운동에서와는 달리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주체가 있다는것을 천명하고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것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으로 된다는것을 명시하였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것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이다. 인민대중은 언제나 자연과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 살것을 지향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벌려나간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력사적투쟁은 그들의 창조적힘에 의하여 힘있게 추진된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변혁해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재능,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가지고있다.

세상에 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민대중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천명된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대한 해명은 인류철학사상사에서의 거대한 전변이다.

돌이켜보면 오래동안 인민대중은 《천명》, 하느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거나 걸출한 개인들의 의사에 따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수동적존재로 취급되여왔다. 맑스주의유물사관은 인민대중을 생산력발전의 담당자라고 하였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이라는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고 대할데 대한 새로운 관점과 립장이 흘러나온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로부터 자연과 사회개조를 위한 사회적운동을 일으키고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열의로 그것을 떠밀어 나가는 사회적운동의 담당자라면 그들이야말로 하늘과 같이 귀중한 존재이다.

사회적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과여부는 결국 그 운동의 주인이고 기본동력이며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의 소유자인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난날 무지몽매하고 력사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할수 없는 존재로, 착취와 억압, 천대와 멸시를 받아 마땅한것으로 간주되여오던 인민대중의 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이 세상의 모든것은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질수 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결국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대하는 사회력사원리를 밝힌 이민위천의 사상이다.

지금까지 력사에는 많은 철학조류들이 있었지만 인민대중을 하늘과 같은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시키며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참다운 사상은 바로 위대한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세계와 사회력사에 대한 철학적견해만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그 창시가 선언되던 첫 시기부터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행동의 무기, 실천의 무기로 전개되였다. 주체사상이 처음부터 행동의 무기, 실천의 무기로 전개될수 있은것은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여 전개된것과 관련되여있다.

구호나 웨치고 리론투쟁에만 매여달려가지고서는 인민대중의 운명을 옳바로 개척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혁명과 건설을 통해서만 개척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하자면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투쟁의 원칙이 없는 사상은 아무리 독창적인 원리들을 밝힌것이라고 하여도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될수 없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한마디로 말하여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원칙이다.

여기에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원칙들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라는 말을 1955 년 12 월에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처음으로 쓰시였지만 실지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나온 말이다.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0 년 6 월에 진행된 카륜회의에서 하신 연설 《조선혁명의 진로》

라는 로작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였다.

주체사상은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와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집필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되고 체계화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동시에 정치철학, 다시말하여 사회발전을 옳바른 길을 따라 이끌어나가는 정치의 리론적기초를 밝혀주는 철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시종일관 주체를 견지하여오고있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기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실현하는것은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주체는 한마디로 자주, 자주, 그리고 또 자주를 의미하는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주체라는 말의 의미는 그보다 더 심원하다. 주체는 사람들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있게 하여준다. 주체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유일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의 생활력은 실천을 통하여 수많이 검증되였다. 주체

사상의 영향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을 벗어났으며 세계에는 1 000 여개이상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있으며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 및 지역토론회들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수많은 진보적당들과 민족해방운동단체들이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있다.

실례로 알제리인민민주주의공화국 혁명리사회 위원장이며 알제리민족해방전선 위원장이였던 부메디엔은 1974 년에 《**김일성**주석의 령도아래, 그리고 주체사상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 3 세계의 자랑으로 되였다.》라고 말하였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며 수리아아랍사회주의바아스당 총서기였던 하페즈 알 아싸드는 1977 년에 《우리 수리아에서는 아랍사회주의바아스당이 이끄는 3 월 8 일 혁명의 출발점이며 원칙으로 되는 주체사상으로 새 세대들을 교육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나미비아서아프리카인민조직 책임자이며 나미비아대통령이였던 삼 누죠마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는 **김일성**수상이 론문<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에서 밝혀주신 로선에 의거하고있다. 우리는 반미반제투쟁에서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은 자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압력과 봉쇄, 그리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민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인민과도 달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지키며 그것을 강화해나가는 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정책이다.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하게 주체의 원칙,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수행

해나가고있다.

2014년 4월 14일 평양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과 대표들,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참가하였다.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겸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은 보고에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혁명사상은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세계자주화위업을 추동하자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침으로 삼아야 할것이라고 토로하였다.

그는 자주와 평화, 번영에 대한 시대적흐름이 고조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기 위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역할을 높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현시대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리키는 길로 나아갈 때 자유와 평화, 번영에 대한 인류의 념원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는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은**제1비서의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2014년 2월 25일)를 학습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사회호상관계》,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사상이다》등의 제목의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리론을 포괄하고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세계인민들에게 자주와 독립의 길을 밝혀주고있다고 열렬히 격찬하였다.

빛나는 사상의 전통은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어지고있으며 조선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인민들이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사상을 **김정은**각하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신것은 정당한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에 맞게 위대한 사상을 구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피력하였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은 진보적인류와 굳게 련대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을 마치면서 그들은 《불멸의 주체사상 만세!》,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등의 구호들을 소리높이 웨치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해나가고있다.

선군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며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인류사상사에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내세운 사상조류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사상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총대, 혁명군대를 기본으로 하여 밝히지 못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지

향한 첫 사회주의학설이였던 공상적사회주의리론은 피착취근로대중을 단순한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자본주의사회악을 폭로하였으며 사람들에 대한 계몽과 착취계급의 이른바 《선의》에 호소하는 개량의 방법으로 사회적평등을 실현해보려고 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자본주의사회를 전복할수 있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 주력군은 로동계급이며 로동계급의 계급투쟁에 의하여서만 사회주의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회주의를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전환시켰다.

맑스-레닌주의는 자본주의사회는 개량의 방법으로써는 뒤집어엎을수 없으며 오직 로동계급의 혁명적폭력으로써만 전복하고 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적지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무기로 하여서만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밝히였다. 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적지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무기로 하여 착취계급의 사적소유를 청산하고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며 경제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할데 대한 프로레타리아독재리론은 맑스-레닌주의의 핵을 이루는 사상이다.

맑스-레닌주의가 밝힌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리론에서는 선군을 제기할수가 없었다.

선군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전과정에서 언제나 군사를 그 무엇보다 중시하고 그 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며 로동계급보다 혁명군대를 앞세우고 그의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에 의거할데 대한 혁명사상이다. 선군혁명사상의 모든 원리와 원칙, 내용들에는 다 군사선행, 선군후로의 사상이 관통되여있다.

선군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울데 대한 사상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 대외관계를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각이한 분야들은 다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모든 사회생활분야들가운데서 군사분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사회생활에서 군사분야가 가지는 절대적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옳바른 리해로부터 군사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혀주는것이 바로 선군사상이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한다. 이것은 혁명운동의 법칙이다. 사회가 계급으로 분렬된후 인류력사는 지금까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과 그것을 유린말살하려는 착취계급, 반동계급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발전하여왔다.

고대로마의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이나 중세 로씨야에서의 쓰쩬까 라진농민전쟁이 결코 우연적인것은 아니였다. 인민대중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면서 폭동과 봉기를 일으키고 전쟁에 뛰여든것은 다 생명보다 귀중한 자주성을 위해서였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강화될수록 착취계급, 지배계급과의 힘의 대결은 보다 첨예화된다. 착취계급, 반동계급은 자기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발악적으로 반항한다.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은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격렬해진다.

계급적지배와 민족적압박을 결합시킨 횡포한 억압제도인 제국주의가 의거하는 결정적수단은 가장 야만적인 반혁명적폭력이다.

마쟈르혁명의 실패가 남긴 교훈도 이에 대한 뚜렷한 반증으로 된다. 마쟈르에서는 1919년 3월 로씨야 다음으로 쏘베트정권이 수립되였다. 공산당의 령도밑에 이 나라에서는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고 8시간로동제와 전반적인 무료사회보험제, 무료교육제를 실시하는 등 인민적인 시책들이 실시되였다. 그러나 혁명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제국주의자들은 국내의 반동세력과 함께 우세한 력량

으로 로골적인 무력간섭을 감행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었던 마쟈르의 쏘베트정권은 결국 130 여일만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은 계속된다. 사회주의제도를 한사코 없애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군사적위협과 침략책동으로 하여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수호전은 계속된다.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힘의 대결속에서 계속되는 사회주의수호전은 제국주의침략책동을 단호히 제압분쇄할수 있는 강력한 힘이 안받침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추진되여나갈수 있다.

선군혁명사상은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각이한 계급과 계층, 사회적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혁명력량가운데서 혁명군대만큼 위력한 집단은 없으며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할 때 혁명의 주체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하고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혀주는 혁명사상이 바로 선군사상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지만 그가운데서 기본문제는 누구를 혁명의 주체의 핵심력량으로 삼는가 하는것이다. 혁명의 주체의 핵심력량을 누구로 선정하며 어떻게 강화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주체의 역할과 위력이 결정되며 나아가서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이 좌우된다.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여러 계급과 계층, 사회적집단가운데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집단은 바로 총대를 잡은 혁명군대이다.

지금까지 군대라고 하면 대체로 군사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무장한 집단이라고 보아왔다. 원래 군대는 계급사회의 출현과 함께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폭력수단으로,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상비적인 무장집단으로 조직되였으며 군사적활동을 자기의 고유한 사명과 임무로 하고있다. 하지만 혁명군대는 싸움만 하는 집단, 단순한 군사적집단이 아니다.

혁명군대는 총을 잡고 반제군사전선을 지켜선 무장력일뿐아니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가는데서 핵심으로 되는 혁명력량, 혁명집단이다.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게 될 때 혁명의 주체는 혁명의 제일선에서 결사의 투쟁을 벌려나가는 혁명군대의 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일색화된 불패의 전투대오로,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강위력한 혁명력량으로 장성강화되게 된다.

물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을 내세우고 그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길을 택할수도 있다. 이것은 지난 시기의 혁명투쟁에서 어길수 없는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진것이였다.

그러나 혁명군대의 본성과 무장대오로서의 그 특성, 혁명실천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혁명군대만큼 위력한 혁명력량은 더는 없다. 이로부터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할 때 혁명의 주체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갈수 있다. 이것은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삼는데 혁명의 주체강화의 새로운 길, 가장 옳바른 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한가지 명백히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고있으며 주체사상에서 자기의 고유한 위치를 차지한다는것이다.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이 혁명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혁명리론이라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혁명사상은 혁명의 총대에 의하여 혁명위업의 승리가 결정된다는 주체의 혁명원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혁명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들에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해답을 줍니다.》

선군사상은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관건적문제들에 과학적이며 실천적인 해답을 주는 사상리론이다. 물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러나 그가운데는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되는 관건적문제가 있다.

혁명투쟁에서 관건적문제는 무엇을 혁명수행의 가장 위력한 힘으로 내세우는가 하는데 있다.

선군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위업수행의 가장 위력한 힘은 군사적힘이며 혁명군대의 위력이다. 군사적힘이 있어야 혁명의 개척과 전진을 가로막는 반혁명세력의 야수적폭압과 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실수 있으며 혁명군대의 역할과 위력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확고히 담보해나갈수 있다. 군사적힘, 혁명군대의 위력은 혁명의 제일가는 힘이다.

선군사상은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힘이 다름아닌 군사적힘이며 혁명의 핵심력량인 혁명군대의 힘이라는것을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며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가는것이야말로 혁명의 승리를 무적의 총대의 힘,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혁명의 주체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확고히 담보해나가는 가장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길로 된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대결전이

절정에 달하고 제국주의의 군사적전횡과 침략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시대적조건은 총대, 혁명군대를 떠나서는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확증하여주고있다. 총대, 혁명군대를 틀어쥐면 혁명은 백전백승하지만 총대를 홀시하고 놓치면 혁명은 순간에 망하고만다.

선군혁명사상은 주체사상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혁명리론이다. 선군사상은 총대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 총대로 혁명하는 새로운 길을 밝힌 혁명리론이다. 선군혁명사상이 포괄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혁명과 직결되여있으며 혁명수행의 과학적인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총대의 위력, 혁명군대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그 종국적목적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참답게 실현하는 길을 밝힌 사상리론이 바로 선군혁명사상이다.

선군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길을 밝혀준 주체사상과 별개의 사상이 아니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구성체계에 포섭되고 그 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리론이다.

혁명리론이 없는 혁명실천이란 있을수 없다는 레닌주의가 밝힌 원리는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혁명리론은 과학적으로 론증되고 력사적실천에 의하여 증명된 원칙들을 가지고 자기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보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와 존재방식은 선군사상, 선군정치 그리고 선군혁명령도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선군사상은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알기 쉬운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신 항일무장투쟁이 보여준 진리이며 1930 년 6 월 카륜회

의에서 내놓으신 사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일전의 총성을 들으시며 백두산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작전실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960년 8월 25일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 땅크사단을 시찰하신 때로부터 그이의 선군혁명령도가 시작되였다는것은 세계가 잘 알고있다.

선군사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심화발전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과 혁명을 보위하였으며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권위를 세계에 높이 떨치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검증된 필승불패의 정치이며 혁명승리를 위한 만능의 보검입니다.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총대로 수호하고 계승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신념이며 의지입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선군의 기치높이 과감한 투쟁을 벌려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선군은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속에서 건설된다는 근본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투쟁의 제 1 선에 서있다.

1960 년대에 미국은 남조선괴뢰들로 하여금 《북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라고 사촉하였다.

제국주의는 또한 현대수정주의의 형태로 국제공산주의운동에도

침투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분렬과 혼잡을 초래하였다. 사회주의진영은 둘로 갈라져 위험한 사태를 조성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타협하여 《평화적공존》에 대하여 떠들어대며 반제투쟁을 압살하였으며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일방적이며일변도적인 무장해재를 시작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땅크와 포들을 용광로에 처넣었다. 1962 년에 흐루쑈브는 꾸바를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었다. 이자들은 사회주의진영의 방위력을 약화시켰을뿐만아니라 저들의 《평화적이행에로의 길》리론으로 전세계의 공산당, 로동당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 1962 년의 꾸바의 경험과 교훈은 작은 나라는 큰 나라들에 자기의 방위를 맡길수 없으며 자기 나라를 지켜달라고 다른 나라들에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조선은 미제와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여 자기의 자위적국방력과 혁명로선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는 《평화적공존》과 같은 화려하고 쇠퇴한 말장단으로는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알고계시였다. 조선혁명의 모든 경험은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수호되고 전진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선인민군은 정치사상적으로 강화되였다. 조선인민군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로동계급의 군대로 강화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며 인민군대의 사명은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철저히 계승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되였다. 조선인민군은(비록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일당백》 구호를 반대해나서려 했지만) 모든 병사들이 일당백병사

로 된 군대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은 완전무장한 미제국주의에 일격을 가하였다. 1968년 1월 미제침략자들의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는 원산앞바다에서 조선인민군 해군에 나포되였다.(오늘도 보통강반에서 《푸에블로》호를 볼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푸에블로》호가 《국제령해》에 있었다고 그릇되게 주장하면서 즉시 배를 돌려보낼것을 요구하였으며 비겁한 수정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낼것을 권고하려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요즘 어떤 나라 사람들은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고 <푸에블로>호를 조용히 놓아주는것이 좋겠다고 <권고>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양보하라는것인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미제에 대한 양보는 곧 굴종이며 투항입니다. 인민군대가 <푸에블로>호를 미국앞바다에 가서 붙잡아온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 령해에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는것을 나포한것만큼 우리는 미국놈들에게 양보할것도 없고 빌붙을것도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에 동요하지 않고 미국이 사죄를 할 때까지 그러한 요구들을 배격하였다.

1969 년 미제간첩비행기 《EC-121》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공에 침입하였다가 조선인민군 항공군에 얻어맞고 격추되였다.1994 년에는 미군직승기 한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공에 침입하였다가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단 한방에 격추되였다. 이러한 모든 승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군정치를 실시한것이 전적으로 옳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선군정치에 대하여 보다 구체

적으로 알려면 나의 도서 《선군을 옹위하여》를 보시오.)

결국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말하든지간에 자기 할바를 하고 제할소리를 다하는 주체의 나라, 자주의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보다 더 강대해지고 굳세여졌다.

선군령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95년 1월 다박솔초소에서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자주적인 인민이 되느냐 아니면 제국주의 식민지노예로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다고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를 고립압살하려는 미국과 세계제국주의의 끊임없는 압력과 책동을 짓부셔버릴수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에 도전하며 주체의 길을 따라 긍지스럽게 전진하여왔다. 선군혁명령도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전진시켰으며 최후의 승리에로 추동해가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무기들을 버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러한 요구들에 귀를 기울이고 무기를 내여주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하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다면 나의 도서 《선군을 옹위하여》를 보시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핵억제력강화정책과 함께 선군혁명령도와 선군정치를 굳건히 이어나가고계신다.

2012년 1월 1일!

세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렀다.

슬픔의 바다속에 잠겨있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끌고 그이께서는 과연 어떤 길을 걸으실것인가. 나름대로의 추측과 랑설도 있

었다.

여론들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조선을 주시하고있을 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전을 찾으신데 이어 제일먼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 땅크사단을 찾으시였다.

긴 설명도 해석도 필요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첫 걸음을 선군으로 시작하심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시였다.

지구가 들끓었다. 세계 수많은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이 《**김정은**령도자 땅크부대 시찰》,《최고사령관의 첫 시찰은 땅크사단》등의 제목을 달고 충격적인 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2012 년 4 월 15 일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평양에 집중되였다.

바로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100 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하시여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라는 첫 공개연설을 하시였기때문이였다.

일반적으로 령도자의 첫 공개연설은 그의 정치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첫 공개연설을 통하여 령도자의 로선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특징지을수 있다.

하기에 이날 세계의 수많은 통신, 방송들은 평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자기의 파장을 조선에 맞추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에 하신 연설을 통하여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며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명철하고도 완벽한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인민이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 이날에 하신 연설은 선군사상이 가리키는 길, 당의 선군정치를 받들어나가는 길을 혁명의 변함없는 좌표, 투쟁의 영원한 전략으로 그어주신 력사적인 연설이였다.

그것은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으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사를 빛내여나가려는 드팀없는 의지의 선언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강위력한 군사적위력을 지닌 대국으로 되였다.

2017년 4월 15일 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105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였다.

이번 열병식에는 최신형땅크와 장갑차, 자행포, 방사포, 로케트들을 비롯하여 100%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재로 만들어낸 무장장비들이 나갔다.

건군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된 이번 열병식을 놓고 세계언론들은 그것은 한마디로 《전략군열병식》이라는것, 조선은 세계의 면전에서 핵강국임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였다는것, 미국과의 전면전에 언제나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음을 세계에 대고 공식 통지하였다고 평하고있다.

열병식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는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고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반동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었다.

참으로 이 열병식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군력을 천백배로 다져온 조선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준 독특한 무력시위였다.

선군이라는 말은 주체라는 말과 함께 조선에서 태여나 전인류적인것으로 공감하고 파급되고있는 오늘의 시대어이다.

선군사상은 조선혁명의 지도적지침이다. 선군혁명, 선군정치, 선군조선의 위대한 력사를 탄생시킨 독창적인 선군은 조선에 있어서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삶과 투쟁의 영원한 주제이다. 선군은 인민들속에서 자주이고 애국이고 존엄이며 승리라는 개념으로 통칭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군력이 약하여 나라를 통채로 잃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피눈물나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력이 약하면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킬수 없고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롱락물로, 희생물로 되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며 따라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20 세기 초에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의 희생물로 되였고 조선인민은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에 처하였다. 자원을 몽땅 략탈당하였고 근로계층은 극히 가혹한 착취를 받았으며 5 000 년의 력사를 가진 이 나라의 문화재부들이 대대적으로 도굴되였다. 또한 식민주의자들은 조선민족말살책동에 매달리였다. 조선말을 강제로 빼앗고 조선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이름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

다. 그럴수록 억압자들에 대한 인민의 증오심은 더욱 강렬해졌고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광범한 투쟁세력이 형성되였다.

항일혁명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 투쟁무대에 나서신 때로부터 진정한 효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투쟁목적과 방법을 밝혀주시고 새로운 사상들로 고무하시고 무장투쟁을 지도하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군중정치사업과 전투작전을 훌륭히 결합시키시였다.

이전 쏘련과 미국의 무력사이에(38 도선을 따라) 군사적책임령역를 나눈것이 곧 조선의 분렬로 되였으며 그것을 되찾기 위한 사업은 처음부터 복잡성을 띠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저들의 병력을 철수시키려 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아시아침략을 위한 교두보로서 전체 조선을 정복하려고 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괴뢰정권을 세우고 1950 년에 무력침공을 단행하였다. 조선전쟁에서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전례없는 잔인성으로 악명떨친 미제국주의자들이 참패를 당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평화적환경이 보장되지 못하고있다. 전후 수십년에 달하는 전기간 조선인민은 경제봉쇄뿐만아니라 항시적인 군사적도발과 새 전쟁의 위험을 받으며 살아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군사를 첫자리에 내세우는 선군정치를 펼치였다. 온 나라를 요새화하고 군대를 간부화, 현대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야 할 과제들이 제기되였다. 긴장한 전투를 벌려 그것을 수행하였으며 나라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놓고 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사상을 첫자리에 내세우신것이 결코 놀라운 일

이 아니며 그것은 응당한것이다.

선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여오신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다. 선군의 기치와 더불어 조선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조선은 온 세상에 자기의 존엄과 위상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거의 80 년에 이르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 창조의 력사적경험은 바로 선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활력과 불패성의 원천이 있다는 진리를 전면적으로 확증해주었다.

선군은 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확고한 담보이다.

## 제 3 절. 불패의 통일단결을 실현한 나라

현대수정주의자들과 그들의 사상적동정자들과 부르죠아자유주의자들은 《개인미신》에 대하여 떠들기 좋아한다. 이것은 서거한 쓰딸린과 이전 쏘련의 사회주의건설을 비방하고 헐뜯기 위해 흐르쑈브가 쓰던 말이였다. 흐르쑈브가 쏘련공산당 제 20 차대회에서 한 이른바 비밀연설은 제국주의나라들에 루출되였으며 《개인미신》이라는 말은 수정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과 함께 반공화국선전자들의 도구로 되였다.

1956 년 2 월에 진행된 쏘련공산당 제 20 차대회를 계기로 《개인미신》반대소동을 일으킨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 당들에《개인미신》문제를 취급할데 대하여 《지시》하였다. 적지 않은 나라 당들이 이 《지시》를 받아들임으로써 《개인미신》반대소동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게 되였으며 견실한 지도간부들이 《쓰딸린주의자》로 몰려 축출되거나 강직되는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빚어지게 되였다.

흐르쑈브의 반사회주의적책동으로 하여 이전 쏘련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커다란 진통을 겪었다. 이전 쏘련이 흔들리고 그로부터 몇십년이 지나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복귀되고 사회주의가 좌절되였다.

《개인미신》이라는 리론이 끝을 본것으로 하여 사실상 이것은 앞으로 벌어지게 될 퇴보의 시작이였다. 이른바 《개인미신》이라는 리론의 본질은 수령과 대중을 인위적으로 갈라놓는것이다. 부르죠아론평원들과 수정주의론평원들은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통일의 중심이라는것을 알지 못하고있다.

《개인미신》에 대하여 떠들어대는 자들은 사회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못하고 사회를 개별적사람들의 총체로 보는 부르죠아적사회관에 물젖은 자들이다. 특히 극단적이며 허무주의적인 이러한 세계관은 《사회란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적이 있는 이전 영국 수상 마가레트 태쳐 (이 녀자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환성을 지름)에 의하여 표현되였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 사회의 최고뇌수이다. 사회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하나의 몸체와 같다. 뇌수가 없는 육체란 있을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뇌수가 없는 육체를 가질수 있다고 보고있다. 뇌수가 자기들의 육체를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혼연일체를 이르고있으며 이것은 그 어느 착취사회나 그 어느 수정주의나라들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람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단결되여있다. 그들은 하나와 같이 움직인다.

조선의 일심단결은 거대한 열병식과 군중시위, 청년들의 홰불행진을 통하여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나는 이것을 2012년 4월 15일 열병식과 2013년 7.27 열병식, 그리고 2015년 10월의 열병식과 군중시위, 홰불행진을 보면서내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다.

2015년 10월 10일에 진행된 열병식은 내가 3번째로 보는 열병식이였다.

열병식이 시작되기전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박수갈채가 터졌다.

열병식은 정말 장관이였다. 열병식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의 정확성, 능력, 규률의 참모

습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규률과 단결, 그리고 능력은 (사회계급적 모순을 앓고있는) 제국주의나라나 수정주의나라에는 결코 있을수 없는것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군대도 그러한 규률을 가지고있지 않다. 열병식에 이어 군중시위가 진행되였다. 군중시위역시 다채로웠다.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시위자들도 열광적이였다. 특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풍년든 벌에 서계시는 사진을 모신 대차를 보면서 나는 감동되였다.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군대와 인민이 대립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군민단결을 시위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군대는 자본주의지배계급의 계급적지배와 억압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군대가 교육도 받지 못하고 무식하고 그 어떤 일도 할줄 모르는 거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병사들은 《땅딸보병사》로 불리우며 멸시되고있다. 내가 사는 도시의 중심에도 군대병영이 있었는데 매일밤 병사들이 맥주집에 나가 취해가지고 시민들을 때리군하여 교외로 나가게 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사회에 내제하는 군대와 인민사이의 뿌리깊은 대립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위력한 군민단결이 있으며 그들의 운명은 사회주의수호의 길에 하나로 이어져있다.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주시였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만세를 부르는 분위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평범한 영국의 한 로동자인 내가 가장 강대한 나라들중의 한 나라의 령도자와 10-20m 안팎에 서있을수 있었다는것이 믿을수 없었다. 열광적으로 만세를 부르는 군중들을 보면서 나는 조선인민의 그 뜨거운 분출과 한덩어리가 되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렬한 지

지와 신뢰를 표시하였다.

저녁에는 청년들의 홰불행진에 뒤이어 다채로운 축포발사가 진행되였다. 날씨가 나빴지만 조선의 청년들은 주저함이 없이 활력과 전투성을 지니고 행진에 참가하였다. 중요한 당창건기념일을 경축하는것이 기뻤기때문이였다.

영국정부는 폭동에로 이어질수 있다는것으로 하여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거리에 나서게 하는 모험을 하지 않을것이였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결코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직후 아닌게 아니라 램버스에서는 만성절전날밤 청년들의 폭동과 무정부주의자들의 《백만가면행진》소요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부상을 입는것으로 끝났다. 영국에는 폭동력사라는것이 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폭동은 2011 년 8 월에 일어났는데 5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3 천여명이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였다. 내가 살고있는 윈체스터에서 폭동들은 특별히 격렬하였는바 도시중심의 여러곳들이 파괴되였다. 1980 년대에 브리튼, 리버풀 등 많은 곳들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영국에서 2011 년폭동은 1980 년대폭동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격렬하였다. 미국도 역시 장구한 폭동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대중적인 사격이 미국과 기타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인민이 령도자와 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여 하나의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그러한것들이 일어날수 없다.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자본주의나라들의 상황은 주체의 사회주의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대조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구상의 가장 안정된 나라들중의 하나, 아마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이다.

2017 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105 돐을 맞으며 평양에서는 성대한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진행되였다. 여기에서도 조선인민은 혼연일체의 위력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취재하며 즉시에 전파를 날린 서방의 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모습은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유명한 연출가도 연출하지 못한다, 령도자를 우러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오직 조선인민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조선의 《특허》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AP 통신은 조선의 일심단결을 과시하는 열병식과 군중시위에 참가한 군인들로부터 장시간 한 자리에서 일치된 동작으로 꽃다발을 흔드는 행사군중 등은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볼수 없는 모습이라고 했고 어느 한 나라 통신은 **김정은**위원장님께서 행사참가자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고 또 그이께서 평양시민들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시며 답례하시는 모습은 조선의 일심단결을 보여주는 생동한 모습이라고 하였다.

수령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도 수령을 존경하고 따르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시였을 때 명백히 발현되였다. 그 어느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그리고 진보적인물도 이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대중사이의 관계는 가까운 관계로서 서방사람들은 이를 리해하기 힘들어하였다. 그 관계는 혈연의 관계와 같았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자기들의 친아버지로 여겨왔다.

주체조선에 대한 보다 어리석고 가장 무례한 선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시였을 때 《국가가 조직한 애도》라

고 까지 극단적으로 퀘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로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조선인민을 모욕한 《BBC》와 같은 제국주의보도매체들에서 진행되였다. 일을 나가라고 사람들을 강요할수는 있지만 사람들을 울라고 강요할수는 없는것이다. 감정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온다.

남조선괴뢰들과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과 잡다한 국제반동세력들은 부득이한 직접적인 힘(남조선과 일본에 주둔하고있는 미군과 남조선에 있는 미국의 1 000 여기의 핵무기들이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이나 제재가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내부로부터 허물어 전복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물론 이전 쏘련과 동유럽에서 리용되였다.

2009 년 1 월 19 일부 조선의 로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계급투쟁을 포기한 동유럽나라들의 교훈은 치렬한 계급투쟁에서 한걸음의 양보나 후퇴를 하게 되면 열걸음, 백걸음의 양보와 후퇴를 하게 되며 종당에는 사회주의전취물을 적들의 손에 잃게 되는 비극을 면치 못한다는것이다.

계급적원쑤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은 계급투쟁의 과녁을 똑바로 할것을 요구한다.

제국주의는 사회주의의 제일가는 계급적원쑤이다.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짐승과 같다. 제국주의에 있어서 침략과 략탈은 그 존재방식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기 위해 책동하는 계급적원쑤들이 있다는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자들, 사회에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끌어들이는자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선전에 말려드

는자들, 돈을 위해 사회주의원칙을 저버리는자들, 돈을 위해 국가비밀을 루설하는자들과 사회주의의 기초를 허물려고 하는자들이 있다. 이들모두가 바로 사회주의의 계급적원쑤들이다.

사회주의사회에 불건전한 사상들을 류포시키려는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사회주의계급진지를 철저히 공고화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여야 하며 계급의 총대, 혁명의 총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사는 사람들이 초계급《인권》과 《박애주의》라는 말에 속아넘어가지 말것을 강조하였다.

1960 년대에 수정주의자 흐루쑈브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철페하고 《전체 인민의 국가》라는것을 선포하여 계급투쟁을 저버리고 혁명을 중도에서 포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7 년에 발표하신 로작《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에서 이러한 리론을 심각히 비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또한 우경적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과도기를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는 때까지로 보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기를 사회주의제도의 승리까지로 보는것은 국내적으로는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의 계급투쟁을 그만두고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와 평화적으로 살면서 세계혁명을 하지 않으려는 사상관점에서 나온것입니다. 더구나 과도기가 끝나면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이후 1968 년 9 월에 발표하신 로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

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준동하고 계급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순수한 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란 있을수 없습니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억만장자들에게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여 치부하며 그들을 억압할 자유를 주지만 근로대중에게는 헐벗고 굶어죽을 자유밖에 주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계급적성격을 부인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접수할수 있는 이른바 <순수한 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 인민들에게 부르죠아적민주주의와 노예적자유를 강요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이며 초계급적리해를 반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복된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잔여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보고있다. 실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간첩들에 의한 태업과 협잡을 당하였다. 실례로 2002 년에 남조선은 1953 년부터 1972 년사이에 매일 1 명에 해당하는 7 726 명의 간첩들을 들여보냈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개방》을 하고 《다원론》과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것은 참으로 천진란만한 생각이다.

소위 《극단적인 좌익분자들》과 뜨로쯔끼파들은 이른바 《망명자들》(실지에 있어서는 범죄자들과 반역자들), 그리고 나이와 출생지를 알수 없고 또 썼다는 책이 사실자료라기보다는 소설화된 신비스러운 데미크양과 같은 미중앙정보국의 후원을 받는 선전자들이 주어섬기는 말들을 반복하고있다.

2013 년 12 월 8 일 조선로동당 제 1 위원장(당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지도하에 조선로동당 정치국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반당반혁명종파역적도당 장성택의 범죄가 폭로되였으며 역적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시키고 당에서 제거할것을 결정하였다.

12 월 8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역적패당은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에 대한 당적지도를 약화시킴으로써 제도보위, 정책보위, 인민보위사업에 엄중한 해독적후과를 끼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공세에 투항하여 계급투쟁을 포기하고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마비시킬것을 노린 반혁명적, 반인민적범죄행위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수 없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역적은 명백히 자본주의생활양식에 물젖은 자본주의순회자였다. 역적은 무질서와 패덕을 초래시켰으며 부화타락한 생활을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대판종파의 정체는 밖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겁을 먹고 안으로는 부르죠아사상문화에 오염된 타락한 사상적변질체라는것입니다.》

종파주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와해시키며 로동운동을 파괴하는 해독적인 사상독소이다. 종파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 발생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반대하여 나서는 반당반혁명적인 사상경향이다.

종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위업수행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가 생겨나게 된다. 종파주의는 혁명대오안에서 부르죠아사상, 소부르죠아사상이 조장되고 외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이 강화될 때 정치적야심가들속에서 발생한다. 또한 그것은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할 때에는 은폐되여있다가 혁명의 시련의 시기나 세대교체시기에 정체를 나타내고 당에 도전해나선다.

종파주의의 기본수법은 양봉음위이다. 겉으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것처럼 하면서 뒤에 돌아앉아서는 쏙닥거리며 당과 수령을 헐뜯고 당의 령도권을 장악하려고 획책한다. 종파주의자들은 또한 자기의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원칙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거나 배척하며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온갖 비렬하고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을 다 쓴다. 종파주의는 사대주의와 결부되여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도 자기의 반당반혁명적기도를 실현해보려고 한다. 종파주의는 그 어떤 원칙적이고 일관한 정견이나 사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야심을 가지고 당에 도전해나서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턱대고 시비하고 반대해나선다.

종파주의자들의 반당반혁명행위에서 기본은 수령을 헐뜯고 반대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종파주의의 본색을 가려낼수 있다.

종파주의의 해독성은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음으로써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방해하며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아나서는데 있다.

력사적으로 조선은 종파주의로 하여 커다란 시련을 겪어왔다. 조선에서 종파주의는 1920 년대 초에 발생하였다. 맑스주의가면을 쓰고 로동운동대렬에 들어온 부르죠아, 소부르죠아 및 몰락된 량반출신지식인들속에서 발생한 종파분자들은 《5 인 1 당》, 《3 인 1 파》

로 리합집산하면서 《화요파》, 《엠엘파》, 《서상파》, 《서울파》, 《이르꾸쯔끄파》 등 형형색색의 파벌을 무어가지고 자파세력확장과 령도권쟁탈에 광분하였다.

종파분자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와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등 조선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마다 혁명대오에 기여들어 당과 혁명에 도전해나섰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운동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종파주의는 조직적으로 극복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랑스러운 계급투쟁의 력사,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중앙정보국 요원들이였던 박헌영, 리승엽도당은 나라를 배반하고 전쟁에서 막대한 손해를 초래시켰으며 최고지도부를 전복시키려고 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미국에 팔아먹고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려던 이자들의 책동을 분쇄해버리시였다.

현대수정주의가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더러운 머리를 들이밀었던 1956 년 어느 한 종파일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부 전복을 기도하고 조선을 친미적인 《중립국가》이라고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종파분자들을 격파하시고 인민들속으로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의 지지를 얻으시였다.

강선제강소의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종파분자들을 자기들에게 보내주면 그놈들을 전기로에 처넣겠다고 말씀올렸으며 태성마을의 한 할머니는 그이께 《수상님,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걱정마십시오.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합니다.》라고 정중히 말씀올리였다. 이것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고 의지의 표시였다.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불패의것으로 되였다.

반당반혁명현대판종파분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고 전복시키려고 하였다. 그자들에 대한 폭로, 격파, 그리고 숙청은 가장 시기적절한것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그자들에게 강한 타격을 가하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뜻을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예지와 선견지명을 보여주고있다.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큼 운이 좋지 못하였다.

이전 쏘련은 레닌과 쓰딸린의 령도아래 프로레타리아혁명의 기치를 들었댔지만 흐루쑈브에 의하여 현대수정주의의 피해자로, 미제의 동반자로 굴러떨어지고말았다. 이전 쏘련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혁명적원칙을 저버렸다. 이전 쏘련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페지하고 쏘련을 《전체 인민의 국가》로 선포하여 사회주의원쑤들과의 계급투쟁을 포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혁명적원칙을 견지하고 현대수정주의를 배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7년에 발표하신 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필요성을 명백히 강조하시고 모호하면서도 희미한《전체 인민의 국가》에 관한 사상을 배격하시였다.

이전 쏘련에서 흐루쑈브는 쓰딸린을 비방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포기하였으며 미제와 타협하였다. 이전 쏘련에서 사회주의는

병들기 시작하였으며 종당에는 고르바쵸브와 옐찐과 같은 배신자들에 의하여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것은 다른 수많은 나라들에서도 벌어졌다.

이전 쏘련은 《평화적공존》과 《평화적협력》의 구실하에 미제와 손을 잡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다국적기업인 펩시 콜라회사는 이전 쏘련에도 자기 공장들을 가지고있었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는 미국식 부르죠아문화가 휩쓸었다. 1988 년과 1989 년에 마쟈르를 방문하면서 나는 사람들이 마도나와 같은 부르죠아제국주의류행문화의 가장 쓰레기같은 측면들에 빠져있는것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미,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었으며 바로 오늘날까지도 이 세상에서 가장 반미적인 나라로 남아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기장을 든든히 치고 제국주의부르죠아사상문화적침투를 막고있다.

다른 나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사상적으로 강하였더라면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같은 위대한 수령들을 모시고있었더라면 고르바쵸브와 같은 역적들을 폭로전멸시켰을것이였고 또 1989 년-1991 년에 벌어진 사회주의붕괴가 일어나지도 않았을것이였으며 제국주의와 대결하는 강력한 사회주의진영을 가지고있었을것이였다.

전투적인 공산주의자들과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한숨속에 《쏘련만이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았더라면 그리고 고르바쵸브가 숙청만되였더라도》라고 말하고있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 장성택역적의 적발과 숙청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취하신 대담하고 결정적인 혁명적대책

이였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혁명의 위대한 승리이다.

당과 국가가 직면할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은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과 결탁하여 뒤에서 사회주의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려는 내부의 원쑤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교훈에 대하여 알고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것을 무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내부의 적들도 격파시킬수 있으리만큼 강해졌다.

부르죠아전문가들은 이른바《반대의 개혁》에 대하여 재잘거리고있다.《개혁》이 좌절된 사회주의보다 완전히 재난적인것으로 하여 이러한 백치들을 재잘거리게 내버려둔다면 그《반대의 개혁》은 강화될것이다. 반당반혁명종파깽들을 청산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나라를 강하게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배신자들의 말로는 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런자들이 혁명을 배신했다고 해서 혁명이 좌절되거나 후퇴했습니까. 배신자들이 제거될 때마다 혁명은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고조되고 앙양되였습니다. 뜨로쯔끼가 청산된 후 쏘련의 사회주의건설이 얼마나 눈부신 속도로 진척되였습니까. 뜨로쯔끼는 자기가 없으면 쓰딸린이 하는 모든 일이 시시해지고 쏘련이라는 나라가 망가질것처럼 생각했지만 쏘련인민은 자기 나라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장국도가 공산당을 등지고 국민당의 식객이 된 다음 중국혁명은 쇠퇴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로상승하여 전국적인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림수산이 적에게 투항하여 사령부의 비밀을 다 팔아먹고 <토벌

대>를 끌고 돌아치며 우리에게 피해도 입혔으나 조선인민혁명군은 약화되지도 않았고 붕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변절한 다음 우리 대오는 더욱더 철통같이 단합되였고 우리 혁명은 자체의 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해가면서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돌진하였습니다.

혁명의 배신자들은 전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벌어질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최창익, 윤공흠, 리필규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 장애를 조성하려고 하던자들이 저들의 종파적기도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당을 배반하고 조국을 반역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떨어져나가자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고조가 일어나고 천리마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때부터 온 세계가 우리 나라를 천리마조선이라고 부르게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반당반혁명종파도당이 청산된후 사회주의건설은 놀라운 속도로 앙양되여 여러가지 새로운 건물들이 솟아나고 새로운 거리들이 건설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적으로 신봉하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실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상하가 합심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늘 현실에 깊이 들어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불러일으켜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래전에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는 인민적사업방법,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내놓았다. 여러차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면서 나는 일반로동자들의 옷차림을 한 간부들과 일군들을 보아왔으며 그들을 일반 근로자들과 구별하기 어려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고위일군들을 위한 별장도 큰 부동산도 없다.

이전 쏘련은 수정주의국가였을뿐만아니라 관료적인 국가였다. 이전 쏘련은 해가 갈수록 더욱더 관료화되였다. 관료주의로 하여 나라는 무능해지고 침체에 빠지게 되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창건첫날부터 시종일관 관료주의를 배격하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당사업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는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주적>입니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현상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우리 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서의 본태를 고수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016 년 5 월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관료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시였다.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손로동(금요로동의미)을 하게 되여있다. 일군들은 일반 살림집구획들에서 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특전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 《엘리트》들도 없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에 있다고 말하고있다.

흩어지면 모래알처럼 짓밟히고 뭉치면 산악처럼 솟아난다는 말이 있다. 혁명투쟁에서 뭉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한다. 이로부터 단결은 혁명의 생명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라고 하는것이다.

일심단결은 혁명대오가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통일단결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광범한 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된 사상적순결체,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뭉쳐진 도덕의리적결합체이다.

바로 이러한 일심단결은 선군정치의 튼튼한 정치적지반이며 강력한 추진력으로 된다.

정치적지반은 일정한 정치방식이 뿌리박고있는 터전이며 그 공고성을 담보하는 근본원천이다. 군대와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진 단합인것으로 하여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다.

정치방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여나가자면 정치적힘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적목적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나갈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정치방식은 언제가도 자기의 모습을 뚜렷이 나타낼수 없다.

일심단결은 사람들의 단순한 기계적결합이나 산수적인 합계가 아니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수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방침을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지향도 하나로 되고 운명도 미래도 하나로 합쳐진것이 다름아닌 일심단결이다.

일심단결은 공동의 정치적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광범한 대중을 한결같이 일떠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선군정치를 강력하게 추동해나간다.

오늘 조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다.

하기에 세계는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바로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에 있다고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무기라고 하면 핵무기를 념두에 두고있다.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이 세상에 핵무기의 물리적힘을 릉가하는 그보다 더 위력한 무기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있다.

천만군민이 령도자를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조선의 일심단결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이다.

불패의 혼연일체는 오직 조선에만 있고 조선에만 있을수 있는 특허무기이다.

# 제 4 절.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국가이다. 인민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있는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의 우월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모든것을 자기의 리익에 맞게 자신의 힘으로 처리해나간다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고있다.

인민은 정치의 주인이 되여야 모든 사회생활을 주인답게 해나갈수 있다. 그것은 정치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이기때문이다.

사회에는 각이한 정권형태와 류형들이 있다. 정권은 계급으로 분렬된 사회, 개인적소유가 지배하고 계급에 의한 계급의 착취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력사적으로 발생한 특수한 주권형태이다. 이 경우 초기에는 전체 사회의 리해관계를 대표했던 사회주권이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리해관계를 대표하고 보호하고 반영하며 그것을 필수적이고 일반적인것으로 온 사회에 내리먹이게 되며 그것은 협소한 리기주의적이며 계급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맑스는 생산관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다른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로동자와 자본가와의 관계, 농노와 토지소유자사이의 관계 등이다》라고

셨다.

자본주의제도가 뒤집어지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계급에 의한 계급의 지배, 계급에 의한 계급의 착취, 계급에 의한 계급의 억압은 없어지게 된다. 사회주의국가는 계급에 의한 계급의 지배와 예속이 청산된 사회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근로자로 전환된 사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이 국가정권의 주인으로 되여 모든 사회생활을 진행해나가고있다. 이 나라에서 국가정치는 철저히 정치의 주인인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된다. 국가는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모든 정책을 세우고 인민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집행해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이 국가정치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을뿐아니라 당조직을 비롯한 정치조직들을 통한 정치생활에도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

흔히 정당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으로 하여 단합된 사람들의 조직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들은 일정한 계급이나 계층의 리익과 요구를 반영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국가정권을 쥐는것을 최종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레닌), 즉 정권을 쥐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기구로 리해되여왔다. 국가주권은 인민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기구이며 정당은 그 기구의 핵이다.

혁명적당은 혁명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를 이어가며 인민대중을 령도하여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오직 그렇게 되여야 조선인민의 행복

한 생활을 담보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문제도 이와 같이 설명할수 있다.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추대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조선혁명을 대를 이어 완성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조선의 위력을 강화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 조선민족이 번영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는것을 온 세계에 확신성있게 긍지높이 선언한것으로 된다.

흔히 사회의 정치체계에는 정당과 국가를 제외하고 사회단체, 로동집단 등 다른 요소들도 포함되는데 그것들도 정치적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단체, 근로집단들이 대중을 정치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정치적적극성을 높이며 국가와 사회의 사업들을 조종하는 사업에서 노는 역할이 높아진다. 사회단체, 근로집단들의 설복과 교양의 기능, 사회적사업과 전반적인 정치관계체계를 조종하는 기능은 강화발전된다. 이와 함께 당과 국가를 대중과 련결시켜주는 수단으로서,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당과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급자로서 이것들이 가지는 의의도 높아진다.

정치체계의 이러한 요소들은 총체적으로 각이한 부류의 근로자들을 포괄하고있으며 정치관계기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서 서로 다른 방법과 수단에 기초하고있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정치조직을 통하여 종합되며 그것이 그대로 당과 국가의 정책과 시책에 반영되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단체들이 있다. 첫째로, 1945 년 11 월 30 일에 창립된 조선직업총동맹, 둘째로, 1945 년 11 월 18 일에 창립된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셋재로, 1946 년 1 월

17 일에 창립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넷째로, 1965 년 3 월 25 일에 창립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정치조직들의 활동은 철저히 인민대중의 의사와 념원,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복종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다른 정당, 사회단체들도 존재하고 활동한다. 실례로 집권당인 조선로동당외에 1945년 11월 3일에 창건된 조선사회민주당과 1946 년 2 월 8 일에 창건된 천도교청우당이 있다. 두 당은 다같이 조선로동당의 령도적역할을 인정하고 그의 정치를 지지하며 그와 적극 협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을 생산수단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재부와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있다.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사회적재부와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규정된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를 관리할 권한과 생산물을 처분할 권리까지 가지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경제를 자기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고 관리운영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으며 자기가 창조한 물질적부를 향유하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생산수단과 분배, 교환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철저히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국가이다. 국가적소유이자 곧 전인민적소유이며 국가적소유의 대상에는 한계가 없다. 모든 자연부원과 주요 공장, 기업소들, 항구들과 은행들, 교통수단과 체신기관들은 오직 국가만이 소유하고있다.

협동단체들의 소유는 협동경리에서 근로인민의 집단적소유이다.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주요공장, 기업소들을 소유할수 있다.

국가적소유는 중요산업국유화를 통하여 실현되였으며 국가운영산업의 발전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협동단체들의 소유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통하여 실현되였으며 농업의 발전에 의하여 급속히 강화발전되였다. 1958 년까지 나라의 공업과 무역, 그리고 농업의 완전한 사회주의화가 완성되여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나오게 되였다.

실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00% 사회주의화를 완성한 몇개 안되는 사회주의나라들중의 하나이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은 모두 사영부분(대체로 경제의 10-20%)을 가지고있었으며 사실상 뽈스까와 유고슬라비아에서 대부분의 농업은 개인이 운영하는것이였다. 이전 쏘련에서는 1982 년에 개인들의 토지는 부침땅의 14%를 차지하였지만 감자의 61%, 과일의 54%,닭알의 34%, 고기의 29%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농업의 사유화였다. 최근년간 현재 존재하는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이 자기 경제에 사영기업들을 끌어들이고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사회주의지지자들속에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계획경제이며 자립경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독점이나 금융자본(대기업이나 대은행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파시즘과 나치즘은 대기업과 대은행주들, 그리고 대지주들을 산생시킨 실질적인 장본인이다. 도이췰란드의 자본가계급만이 나치스에 돈을 대준것이 아니라 국제독점자본도 나치스에 자금을 내였다. 실례로 미국 췌이스 맨하탄은행은 나치스에 자금을 내주었다. 아이쥐파벤과 같은 대자본독점체들이 죽음의 수용소들을 건설하지 않았더라면, 또 은행들이 수용소건설에 자금

을 대부하여주지 않았더라면 나치스도이췰란드에는 그러한 죽음의 수용소들이 존재하지 않았을것이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민들이 자원의 소유자로 되고있는 사회주의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독점자본과 사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파시즘의 덕을 입을수 있는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것이 사회의 주인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이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은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데 복종된다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있다.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자주적권리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제일생명이다. 사람에게 자주적권리가 없으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있을수 없다. 사람은 자주적권리를 가질 때에만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으며 사람답게 살아나갈수 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자주적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인민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는 어느 사회에서나 다 보장되는것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온갖 특권적지배가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당과 국가의 지도와 보살핌속에 참다운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

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는데 복종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자주적지향과 요구, 의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집행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관리와 사회정치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하여 정치조직생활을 할수 있는 법률적, 사회적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서방에서는 조선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론할 때 《전체주의》라는 개념을 많이 써먹고있다.《전체주의》는 후기라틴어에서 나왔는데 totalitas는 전일성, 완정성이라는 뜻이고 totalis는 전부의, 옹근, 가득찬이라는 뜻이다.

원래 전체주의는 파쑈독재자들의 정치리념으로 복무하였다. 바로 악명높은 도이췰란드의 히틀러와 이딸리아의 무쏠리니가 전체주의를 저들의 파쑈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상적도구로 리용하였다.

파쑈독재자들은 기만적인 《국가사회주의》의 구호를 내걸고 민족적전체 또는 국가적전체를 위하여서는 그 어떤 로동운동도 계급투쟁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근로인민대중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마저 말살하고 전대미문의 야수적인 폭압정치를 실시하였다. 전체주의의 반동적본질은 개인은 전체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미명아래 반동적통치계급의 탐욕적인 리익을 위하여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희생시키는데 있다. 전체주의에서 말하는 전체는 인민대중전체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독점자본가, 대지주, 반동관료배, 군벌과 같은 극소수 특권계층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를 《전체주의》라고 비난하는것은 결국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가장 진보적인 리념을 파쑈통치배들의 반동적인 리념과 같이 보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정치적으로 무식한 작가들에도 불구하고 초과지불되여 자라난 매문가들은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파쑈적인 국가라고 떠들어대고있으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무의미한 오해는 모든 인터네트상에 실리고있다.

진실을 조사해보자.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하는것은 가끔 그 자체가 막연하게 정의되는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리트 태쳐를 파시스트라고 부르군 하였다. 대부분의 사전들은 파시즘을 독재주의자, 우익, 그리고 반공주의자로 규정한다.

이러한 정의에 준하여 놓고볼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적인 당인 조선로동당이 이끌고있는것으로 하여 이러한 정의에는 속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문화는 억제되는것이 아니라 활짝 꽃피고있다.

파시즘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견실한 정의는 히틀러법정에 도전하였으며 제 3 국제당 당수였으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의 초대수상이였던 게오르기 지미뜨로브가 내렸다. 지미뜨로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파시즘은 금융자본의 가장 반동적이며 가장 광신적배타주의적이며 가장 제국주의적인 요소들의 로골적인 테로독재이다. 파시즘은 무계급정부도 아니고 금융자본을 초월한 소부르죠아나 룸펜프로레타리아트도 아니다. 파시즘은 금융자본 그 자체의 정부이다. 파시즘은 로동계급과 혁명적인 빈고농과 인테리일부에 대한 조직적인 대학살이다. 자기의 대외정책에서 파시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물학적증오를 배양시키는 가장 야만적인 광신적배타주의이다.》

일부 나라들에 존재하고있는 파시즘은 극단한 팽창주의와 다른 나라들의 령토를 거두어쥐려는 야망에 사로잡혀있다. 히틀러는 생활권에 대하여 말하군 하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이나 일본땅의 부분들을 결코 강탈하려 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철저히 존중하고있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그 나라들을 침략하려 하지 않는다.

오늘의 세계에서 가장 팽창주의적인 나라는 수백여개 나라들에 기지를 가지고있는 미국이다. 결국 사람들은 파시즘을 다른 곳에서 보아왔다. 파쑈적인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다.

조선반도에서 파시즘을 찾아보려는 사람들은 파시스트일본의 협조자의 후예가 지배하는 남조선만 보아도 될것이다. 남조선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억압을 당하고있으며 국가보안법은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또는 지어 단순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찬양하거나 공화국과 그 어떤 계약을 맺었다는것으로 하여 7 년감금형을 내리고있다. 남조선로조위원장의 최근 투옥으로 하여 로조단체들도 탄압을 받고있다. 남조선은 21 세기의 전형적인 파시스트국가이다. 남조선과 칠레의 파시스트정권들, 60 년대와 70 년대 브라질군사정권, 그리스대좌들과 신나치스우크라이나정권을 산생시킨 최대의 파시즘 수출국은 다름아닌 미국 그 자체이다.

부르죠아기관인 반공화국허위기구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기구이다. 사람들이 《고사총》에 의해 처형당하고있다는 허튼 소리들과 《기아》와 《굶주림》에 대한 일반적인 허튼 소리들과 함께 음흉한 신화들이 떠돌고있다. 그 대부분은 4 라지오와 《가디언》을 읽는 이른바 《재잘거리는 계층들》에 목표를 둔것들이다. 그가운데서 하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파쑈적인》 나라라는것이다. 물론 여러해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체에 대하여 관여하고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명백히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라는것을 알고있다.

아무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파시스트적인 나라라는 관념은 단체고용회사의 회의실이나 미중앙정보국의 미궁속 깊은곳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신화이다. 이러한 신화는 깨버리고 폭로하여야하며 진보적인민들은 파쑈적인 남조선과 파쑈적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쟁을 지지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인민우에 군림하여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책임지고 보장해주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사회와 자기자신을 위한 창조적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일할 권리와 로동조건을 마련해주며 그들이 일한 결과에 따라 분배를 정확히 받을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나간다. 그리고 사회보장제, 사회보험제, 정휴양제 등 국가적 및 사회적부담에 의한 인민적시책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보살핌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있다.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에서는 8시간로동제가 실시되고있다. 아이들이 3명이상인 어머니들은 고려하여 하루 6시간 로동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세금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일자리를 가지고있다. 사람들은 헌법에 의하여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의 계획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에 의하여 안받침되고있다. 세금은 1974 년에 폐지되였으며 농업현물세는 1964-1966 년기간에 페지되였다. 살림집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보장되고있다. 평양지하철도는 그 운임이 2페니(런던지하철도최소운임은 4파운드)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눅은것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고도로 발전된 경제를 가지고있고 또 물질적번영을 이룩하였다고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물론 제국주의나라들이 높은 국내총생산액과 국민총생산액통계량을 가지고있는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로동계급에 대한 착취와 함께 식민지략탈과 착취를 통하여 부유해졌다. 그러나 문제로 되는것은 그 경제가 인민에게 복무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이다.

사실상 서방의 부유한 제국주의나라들은 인민에게 복무하지 않고있다. 이 나라들은 실업과 살림집문제, 그리고 빈궁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여기에 2016 년 8 월 11 일 영국의 데일리 미러가 실은 한가지 이야기가 있다. 《거의 400 명의 영국인들이 지난해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죽었다는 놀라운 수자가 나타났다. 국가통계국 사무소는 2015 년에 지난 9 년전에 비하여 27% 뛰여오른 391 명의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전하였다. 통계국은 또한 시위자들이 <국가적인 치욕>이라고 부른 매일 2 명의 영국인들이 기아와 같은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고있다.

공식 정부관리들의 말에 의하면 12달동안에만도 746명이 영양실조로 입원하였다.》

2010 년부터 영국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것을 위해 《식량은행》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영국의 한 자선단체인 트르쎌 트라스트는 실지 빈궁자수는 554 000 명으로 추산하고있다. 이것은 1960 년대와 같은 상황이며 1970 년대는 불가능한것으로 간주되

였을것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극심한 빈궁은 력사책에나있는것으로 믿었지만 그 빈궁이 영국에 확실히 되돌아왔다. 집없는 사람들의 문제 또한 영국에서는 큰 문제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살림집문제는 상당히 긴급한 문제로 되고있다. 중심런던의 강가에 있는 주택은 그 임대비용이 한달에 12 000파운드에 달하며 그것을 사자면 10 000 파운드이상이 있어야 한다. 지어 내가 살고있는 황페화되고 가난한 윈체스터 도크야드에서도 주택을 하나 사자면 20만파운드를 내야 하며 임대비는 한달에 1천파운드다. 영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임대비를 낼수 없고 또 탐욕스럽고 잔인한 집주인들로 하여 쫓겨나고있다. 살림집자선단체인 쉘터는 런던거주자 51명당 1명이 집이 없으며 영국에서 25만명의 사람들이 집이 없이 생활하고있다고 전하였다. 1만 5천여명의 청년들이 런던의 거리들에서 로숙하고있다.

런던에서 상점출입구들에서 잠주머니속에서 잠을 자고있는 집없는 사람들을 보는것은 례상사이다. 리버풀이나 까우스앰톤과 윈췌스터와 같은 다른 영국의 시들에서도 나는 사람들이 상점출입구들앞에서 잠을 자고있는것을 목격하였다. 바다건너 아일랜드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거리들에서 로숙하고있었으며 두불린시에서도 사람들이 상점출입구들에서 잠을 자고있었다.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스, 뽀르뚜갈 등과 같은 서방의 자본주의나라들모두가 사회봉사를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반인민적인 《간소》정책들을 채택하여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계속 낮추어놓고있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인구의 1%가 모든 재부와 번영을 좌지우지할 때 나머지 99%는 상당히 적은 재부와 번영을 얻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장, 토지, 광산, 은행 등과 같은

경제적자원들은 자본가들이 아니라 인민들이 소유하고있다. 공화국에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외국은행이 없다. 많은 반동적인 평론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장화》에 대하여 말하고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어긋난다. 공화국은 사회주의계획경제를 통하여 움직이고있다. 2016년 9월 5일 평양에서는 전국계획일군열성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발표하신 론문 《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절박한 요구이다》가 랑독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그와 같은 대회들이 조직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테제를 보내주신 사실은 제국주의보도매체들과 부르죠아학계의 소위 《조선전문가들》이 선전하는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계획화사업을 포기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더우기 최근 공화국의 가격을 통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격제정위원회는 창립 70돐을 맞이하였다.

거리들의 매대들과 아이스크림판매자들이 자본주의복귀의 신호라는 그릇된 소문들도 퍼지고있다. 그러나 그러한 매대들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사회적소유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식량가격은 대단히 눅어 무상이나 다름없다. 상품의 값도 대중소비품값은 낮게 정하며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필수품값은 더 낮게 정하고있다.

막대한 국가적투자를 하여 일떠선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와 같은 웅장화려한 거리들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완공되여 로동자, 지식인들을 비롯한 평범한 인민들에게 무료로 배정되였다.

공화국에서는 전반적인 12 년제무료의무교육제와 완전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 장애자들도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보살펴주고있으며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과 늙은이들에게도 식량과 옷을 비롯한 모든것을 전적으로 국가가 맡아서 공급해주고있다.

조선은 독립된 초기부터,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기반에서부터 나라가 해방된 그 순간부터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간부가 극히 모자랐다. 공화국북반부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으며 인테리수는 모두 합쳐서 얼마 되지 않았다.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교육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대학생들은 과중한 채무의 부담을 받지 않는다. 그들의 편의와 교복은 무상으로 보장되고있다. 교육시설도 좋다. 1996 년과 2008 년에 내가 참관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창광유치원이 바로 그렇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금과 자원으로 전적으로 건설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창광유치원안의 어린이들은 하루 5 차의 식사를 한다. 제국주의보도매체들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이른바 기아에 울기는커녕 매 어린이들은 하루 120g 의 밥을 먹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교육과 교양, 전면적인 발전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유일한 《특권계급》인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부르는것이 일상어휘로 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조선에서는 지어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자본주의나라들도 아직까지 제기조차할수 없었던 전반적고등교육이나 혹은 공화국에서 말하듯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당면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풀어나가고있다. 최근년간 조선사람들은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데

특별히 힘을 넣고있다.

2016년 9월 6일부터 13일 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면서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조선이 인민적인 정책을 펴고있다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주체조선의 현실이다.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로동당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정책으로 되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활동하는 우리 당의 본성적요구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무효과와 무능, 그리고 타락을 믿지 않으신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의 리익은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고 보신다.

《무능》하고 또 《무력》한 사회주의는 실지에 있어서 위험한것이다. 지난날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수정주의자들이 이끌어온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비록 인민생활에서 일부 부족한것들은 있었지만 누구나 일자리를 가지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이 나라 인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있었지만 관료주의가 만연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원쑤들에 의하여 과대시되고 리용당하였다.

영국을 놓고 보아도 토리당과 지어는 좌익의 일부 사람들이 전후 레이버당정부들을 《사회주의적》인것 또는 《사회주의》로 묘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는 사회주의가 존재하여본적이 없다. 레이버당정부의 《개혁》들은 곧 무능하고 무력한것들(병원치료를 받으려온 사람들의 행렬, 로동계급자식들에게 색연필만 쥐여주고 교육은 시키지 않는 한심한 교육의 질, 회사사무실에 앉아있거나 주가 경영하는 주택을 오래동안 앉아 기다리는 관료들)로 되고말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인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것이며 또 사회주의는 인민적인것이여야 한다.

주체조선의 오늘의 현실은 인민적정책들은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라는것을 과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인민적시책들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조선이 인민적시책들을 철저히 추구하고있는것을 목격하였다.

반제자주와 련대성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참가한 다른 대표단들과 함께 나는 2016년 9월 7일 평양시교외에 있는 평양중등학원을 참관하였다.

학원은 진정한 인민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아래 최근에 개건되였다. 정말 훌륭한 학원이였다. 우리가 탄 뻐스가 학교로 들어서자 넓은 축구경기장이 안겨왔다. 우리 영국에서는 재산개발자들이 축구경기장들이나 체육장소들을 사들이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많은 학교들이 축구경기장을 가지고있지 못하다.

학원은 매우 깨끗하고 영국의 학교들과는 달리 파괴도 락서도 없었다. 학원은 21개의 교실들을 가진 3층건물이다. 학원에는 현대적인 실험실들과 모든 설비들을 다 갖추고있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본성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반제계급교양실도 있

었다. 마땅히 사회주의사회에서 제국주의와 부르죠아패덕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기 위한 반제교양은 필수적인것이다. 학교에는 큰 실내수영장도 있었다.

영국에서 그러한 수영장은 수업료가 36 000 파운드나 하는 사립학교들에만 있다. 학교에는 또한 각이한 모든 체육을 다 할수 있는 다기능체육홀도 있었다. 식사실은 학교의 식당이라기보다는 호텔의 식사실이나 다를바 없었다. 우리는 또한 깨끗하고 위생적인 주방에도 들어가보았다. 여기에도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기아》와 《굶주림》, 《식량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허위라는것을 보여주는 음식들이 그득이 쌓여있었다.

영국과 기타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 고아원과 애육원들이 있지만 이곳들은 어린이들이 육체적고통과 성적학대를 받는 어둑침침한 무서운곳들이다. 영국의 고아원들은 북아일랜드의 킨코라육아원사건과 엘름초대소어린이학대추문을 비롯하여 어린이성학대추문으로 악명높다. 영국에서 고아들은 버림받은 인간들로 취급되고있으며 고아들은 다 자라면 직업도 집도 없게 된다.

그러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조선은 고아들에게 최상의 학교를 마련해주었다.

반동적인 제국주의보도매체들은 인민조선에 있다는 《엘리트》들에 대하여 말하기 좋아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그런것이 없으며 있다면 그들은 왕실가문성원들이나 귀족들, 그리고 부르죠아지들이나 다니는 영국의 엘리트사립학교와 맞먹는 이렇게 훌륭한 학교를 가지고있는 고아들이다.

주체조선은 인민들을 위하여 대규모살림집건설을 진행하고있다. 살림집들은 국가의 부담으로 건설되며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보장되고있다. 이것이 바로 런던사람들의 꿈이다. 중심런던의 주택들은 봉

사료와 차지료와 함께 1 만 US$이상을 지불하여야 살수 있으며 임대하려면 한주일에 600 파운드(년간 31 000 파운드)가 있어야 한다. 나는 상당히 미래파적인 70 층고층건물을 가지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장도 볼수 있었다.

2016년 9월 조선의 북변 두만강연안에서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 여러 시, 군에서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게 되였다.

조성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00 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시키고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하여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였던 주력부대들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급파하였으며 전당, 전군, 전민이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내가 평양을 방문하는 기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나라의 북부지역 큰물피해복구를 위하여 려명거리건설완공을 연기한다는 결심을 내리였다. 이것은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결심과 인민적시책의 뚜렷한 과시였다.

이와 같은 중대결심은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조선로동당만이 내릴수 있는 것이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 피해지역을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총돌격전이 과감히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3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1만 1 900여세대의 살림집들과 100여개의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진료소들이 새로 건설되는 등 전례없는 복구기적이 창조되였으며 북변땅에서는 또 하나의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인민적시책의 또 다른 한 생동한 실례는 새로 개건된 평양에 있는 중앙동물원이였다. 나는 1993년과 2012년에 중앙동물원을 참관하였지만 이번에 참관할 때 보니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 중앙동물원에는 범의 주둥이모양의 입구가 있다. 동물원은 자연박물관과 물고기들이 헤염치는것을 볼수 있는 《바다세계》를 비롯하여 최신식설비들을 갖추고있다. 참으로 훌륭하였다. 동물원이 상당히 큰것으로 하여 여기에는 사람들이 타고 관람할수 있는 전동차들도 있다. 동물원입장은 실지에 있어서 무료이다.

런던에서 동물원입장료는 어른은 기부금을 포함하여 25.35 파운드로부터 28.10 파운드이며 년금자로인들은 22 파운드, 어린이들은 18 파운드이다. 주체의 인민조선에서 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수 있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영국의 로동계급출신의 인민들은 문화와 휴양에서 제외되고있다.

평양은 평양대극장, 동평양대극장, 창전거리에 있는 인민극장, 모란봉극장, 봉화예술극장과 같은 많은 극장들을 가지고있다. 분명히 평양은 런던에 비하여 인구 일인당 더 많은 극장좌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인 9 월 9 일에 봉화예술극장에서 주체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술공연을 관람할수 있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교예공연도 관람하였다.

주체조선에서 사람들은 온갖 문화오락을 즐길수 있으며 또 그것들을 옳게 사회화하고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박혀 TV 를 보거나 인터네트를 리용하는것이 영국의 현실이다. 영국에서 사람들은 빈궁과 불경기, 마약중독, 알콜중독, 외로움과 가정파괴의 영향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다.

자본주의보도매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온갖 모든것을 꾸며내려 하고있다. 현실은 영국과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사회는 불행으로 가득찬 암흑사회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건제도는 자립적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건제도는 영국의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값눅은 임금로동에 의거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병원들에는(주차료나 독방료금, TV 시청료금 등 영국에 존재하는것과 같은) 은닉료금이나 비용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의사들이 환자들의 집에 찾아가 검진을 하고 지역들을 돌아다니는 의사담당구역제를 가지고있다.

주체조선은 형식에서 민족적이며 내용에서 사회주의적인 강한 민족문화로 차넘치고있다. 최근년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음악적우수함과 아룸다움으로 알려진 《모란봉악단》과 같은 음악단체들을 내옴으로써 문화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있다.

주체사상과 위대한 선군정치와 인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공장과 협동농장들에 대한 애국과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조선은 정치의 모범의 나라로, 21 세기의 락원으로 솟구쳐오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과들과 공화국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지나치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한 성과들을 장려하기보다는 문제점들에 초점을 모으라고 말하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가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것이다.

많은 서방전문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과 세계제

국주의의 속국, 《세계화》된 세계의 한 부분으로 될것을 바라고있다. 이것은 개방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저한 자주성은 아마도 공화국이 이룩한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토에 외국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아페크성원국도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전 사회주의 뿔럭인 쎄브에 가입하는것을 거부하였으며 와르샤와조약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시험뿐만아니라 미싸일시험에서도 미국과 나토뿐아니라 중국과 로씨야도 무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제적인 자주적인 정신으로 충만된 태도는 지지와 절찬을 받을만한것이며 공화국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기적을 이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리한 조건에서가 아니라 전쟁의 재더미속에서, 나라가 분렬된 속에서, 미제와 그 추종국들의 항시적인 위협과 압력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쟁의 피해를 시급히 가시고 공업화를 급속히 다그쳤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서방의 이른바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말하는것과 같은 《개혁》과 《개방》을 할 필요가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제국주의반동들은 주체의 조국,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페쇄>니 <고립>이니 하면서 비방중상하며 우리에게 <개혁>, <개방>을 먹이려고 부질없이 책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때 한번 나라

의 문을 닫아맨 일이 없으며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수십억인민들과 서로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있습니다. 개혁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우리는 벌써 수십년전에 낡은 사회제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였으며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계속 혁신하면서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가고있습니다. 실지에 있어서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면서 봉쇄하는것도 우리를 고립시키려드는것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며 그들이 떠벌이는 <개혁>, <개방>도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려는 침략와해책동입니다. 제국주의반동들의 이와 같은 책동은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뿐 실패를 면할수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한 성과들은 참으로 방대하고 위대한것이다. 매일과 같이 주체의 사회주의는 병들고 퇴페적이며 썩어빠진 서방에 비한 자기의 우월성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영결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매우 가슴아픈 일이였다. 그러나 애도기간 조선인민은 선군조선의 통일과 규률과 질서를 시위하였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등주의적본태와 통일성의 과시였다.

영국에서 이전 보수당 수상 태쳐가 죽었을 때 부자들과 사회의 그와 같은 자들은 그에 슬퍼하며 울었지만 빈곤하고 억압받던 대중은 그 녀자의 죽음을 거리에서 연회를 차리는것으로 경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적분쟁이나 계급적모순도 없는 가장 안정되고 화목한 사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들중의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이다. 공화국에서 청년들은 폭동을 일으키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돌격대로 활동하며 또 조국보위에 힘차게 나서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

의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적불평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화국에는 사회적모순이나 인종차별도 없다. 공화국에는 실업자가 없으며 경비삭감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람들은 밤중에 안전하게 거리를 걸어다닐수 있으며 또 저들의 집열쇠도 걸고다니지 않는다.

영국에서 이러한 일은 불가능한것이다. 영국에서는 범죄깽들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있으며 마약중독자들은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본주의나라들이 가지고있는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색정문학이나 이른바 《성산업》도 가지고있지 않으며 또 마약중독자도 없는 고도로 도덕적인 사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매음이 없다.

영국과 이른바 선진적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자유》와 《개성》의 구호아래 지배계급이 퍼뜨리는 온갖 악과 퇴페가 만연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면 그 무엇이나 다 살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과 녀성들이 밤중에 거리를 걷는것이 안전하다. 허나 런던에서는 어린이들이 밤에 혼자 나가는것이 불가능하며 부모들은 하루종일 아이들을 집에 가두어놓다싶이 하고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여러차례 방문하면서 어린이들이 자기들끼리 지하철도를 타거나 거리를 걸어다니는것을 많이 보아왔지만 이것은 영국에서는 상상할수도 없다. 부르죠아성해방으로 하여 영국과 서방의 많은 나라들에서 오늘날 어린 아이에 대하여 성적충동을 느끼는 어른들이 수많이 생겨났다.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는 수많은 정신병환자들이 있다. 자본주의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제에 중독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러한 암담한 사회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나라이다. 여러 차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면서 나는 영국에서는 본적이 없는 번영과 약동의 분위기를 보았다. 실지로 평양의 밤거리들은 활기에 차있고 활력이 있었다. 지어 책을 읽으면서 걷는 대학생들도 있었다. 조선인민은 학습을 대단히 중시한다.

밤이면 런던의 거리들은 비칠거리는 주정군들과 수건과 모자를 뒤집어쓰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리깽들로 꽉 차있다. 영국에서 리혼률은 상당히 높으며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리혼률은 47%이다. 영국과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통가정생활은 거의다 파산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로 되고있으며 법에 의해 보호되고있다.

오스월드 스펭글로와 같은 좌익반사회주의철학가들까지도 서방이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있으며 조만간에 자기의 빛을 잃게 될것이라고 보고있다. 마땅히 서방은 주체조선의 새로운 사회주의문명에 의하여 자기의 빛을 잃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어려있는 주체조선의 사회경제적성과들은 참으로 위대한것이다.

이전 쏘련에서 1970년대말과 1980년대에 있은 침체와 같은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없다. 공화국의 경제장성률은 1950년대의 한해에 40%에 달하였으며 이것은 천리마시대(한달음에 천리를 달린다는 날개달린 전설의 말)로 알려졌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만리마시대(한달음에 만리를 달린다는 날개달린 말)에 살고있다.

조선인민이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락원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투쟁이다.

조선인민이 믿을것은 오직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이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이전 쏘련이나 중국의 복사판도 아니며 또 그 누구에게 의존하는 사회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이다. 주체사상이 구현되고 자주성, 창조성이 활짝 꽃펴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화국에서 사람들은 착취와 압박, 마약, 폭력 등과 같은 지본주의사회의 악들로부터 해방되여있다. 그것은 조선인민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이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그 누구도 비방하거나 헐담하지 말아야 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남기신 유산이다.

## 제5절.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인간의 참다운 권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보장될수 있다.

조선의 사회주의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귀중히 여기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인권을 참답게 옹호하는 가장 우월한 선진적인 사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정한 인권옹호는 오직 인민이 정권을 쥐고있는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그들의 인격과 권리가 최대한으로 존중되는것은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와 인권은 하나로 결합되여있다. 자주적권리를 실현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집대성한것이 사회주의리념이며 인권을 법적으로 제도화한것이 사회주의사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회주의국가이다. 세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사람들에게 인권을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나라는 없다.

영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자는 보도매체들의 선전과 말들이 끊임없이 떠돌고있다. 미제의 반동적인 꼭두각시인 오스트랄리아의 커비재판관은 유엔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서 공화국에 대한 증오와 적의를 야기시키려고 또다시 책동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2015 년 10 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협회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주장들을 론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입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수행하고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공화국의 정치제도는 인민대중을 국가관리의 주인으로 되게 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그들에게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는 인민적인 제도이다. 공화국의 경제제도는 인민대중에게 풍족하고 문명한 생활과 함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담보하여준다. 공화국의 문화제도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주의문화를 창조하고 마음껏 향유하게 해준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제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채택되고 리행되는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들로서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보장해주는것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이러한 사회제도하에서 조선인민은 그 어떠한 사회정치적불안도 없이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의 구호아래 서로 돕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기풍이 사회생활의 여러면에서 나타나고있다.》

처음부터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이른바《인권》공격이 허위와 기만에 기초하고있는것이라는것을 알았다. 누구나 그것이 조선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와 세계의 억압받고 학대받는 인민들의 자주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헐뜯기 위해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파쑈괴뢰들이 꾸며낸 비렬한 음모라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오의 깜빠니아를 고안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목적은 이보다 더 음흉한것으로써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조선의 북쪽 절반땅을 남조선과 같은 신식민지로 만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에 너절한 반공화국비방중상을 일삼고있는 신동혁과 신인권이 나타났다. 신인권은 자기의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고백하였고 또 자기는 자인하는 거짓말쟁이,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솔직히 말하였다. 이웃과 가정, 친구들과 인터뷰를 하는 록화물을 보면서 누구나 그들이 어떤 거짓말쟁이들이며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에 관한 유엔보고서가 어떻게 다름아닌거짓말과 날조에 근거하고있는가를 알수 있었다. 사실상 보고서작성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양에 단 한번도 발을 대보지 못한자들로서 거짓말과 범죄라는 말마디들밖에 들어보지 못한자들이다.

유튜브의 우리 민족끼리통로에서 신동혁에 대한 두개의 록화물을 보면서 나는 우리 영국조선친선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조직이 우리가 부른것처럼 신동혁, 비렬한 인간 신동혁을 폭로한것이 얼마나 전적으로 옳았는가 하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로동교화소》에서 한 인간이 태여날수 있었다는것은 완전히 무의미한 말이라는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록화물은 신동혁의 진실에 대해, 아마 그가 쓰는 이름도 거짓이라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가 말한 모든것이 거짓이였다. 그는 로동교화소에서가 아니라 유치

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와 최고지도부의 사랑은 신동혁에게 모든 좋은 기회들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어머니의 영향으로 하여 범죄자로, 건달군으로 되였다. 그의 어머니는 살인을 저지르고 처형되였다. 신동혁은 사람자체가 게을렀으며 범죄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미성년소녀를 강간하는 중대범죄를 감행하고 형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쳐 남조선으로 넘어갔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유엔, 그리고 기타 다른것들도 상당히 위선적이다. 매일 매시간 이들은 녀성들의 권리에 대하여, 어린이들의 권리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지반 이들은 정의로부터 아동강간자를 보호해줄뿐만아니라 그의 거짓말을 법적보고서의 기초로까지 써먹고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엔의 태도는 구역질나는것이다. 신동혁의 피해자의 인권은 어떠한가? 그 소녀는 인권을 가지고있지 않는가?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권은 어떠한가? 자기 딸에 대한 너절한 범죄에 대한 보상을 받을 그들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나자신도 신동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되여 재판에 회부되여 자기의 범죄로 하여 처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엔은 그러한 너절한 범죄자의 말만 듣고있는 비도덕적인 백치나 다름없다.

박윤미(자칭 박예미)도 역시 거짓말쟁이이다. 이 녀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에게 더 이상 필요로 되지 않을 당시 공화국을 떠나기 위해 여러 산들을 넘던 인정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말하였다. 그는 당시 자기가 있던 나라에서 각이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사람이 쩨임스 본드나 남조선 DVD 를 본것으로 하여 처형을 당하였다는것과 같은 각이한 이야기들을 하였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시체들이 강에 떠다닌다는 이 녀자의 이야기는 커다란 의견이 제기되게 하였다.

이것은 1990 년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체류하면서 공화국과의 경제협력에 종사하고있던 스위스기업가 펠릭스 아브트에 의해 론박당하였다. 아브트는 자본주의기업인이며 공산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주체사상신봉자도 아니다.

우리 대표단은 1996 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때에 우리는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도, 강에 떠다니는 시체도 보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자. 어째서 시체들이 강의 어느곳에나 떠있어야 하는가? 기아로(혹은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대량적인 죽음이 있었다면 시체들은 사체실에 보관하든가 공동묘지에 묻혔어야 할것이였다. 물공급을 오염시키는것으로 하여 강에 시체들을 내버리는것은 있음직한 일이 아닐것이다. 박윤미의 말이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친척들의 시체들을 강에 집어던지고있었으며 아니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것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물속의 시체는 시체의 페에 차있던 공기가 빠지고 물이 차게 되면 가라앉기 시작하는것으로 하여 박윤미의 말을 과학으로서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일단 물에 가라앉으면 시체는 물속에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것들은 기본적으로 론리에 맞지 않는것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박윤미의 아버지를 처벌한것이 상당히 옳은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부모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시키고 자본주의를 복귀하려 하였다. 그러한 원쑤들에 한해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강한 힘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현 세계에서 가장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가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

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전시키시였으며 오늘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승해나가고계시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주장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를 주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람들은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자주적인 나라에서 삶의 권리를 누리고있으며 착취가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고있으며 자본주의나라들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일할 권리, 주택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를 누리고있다.

결과적으로 반공화국 《인권깜빠니아》는 범죄자들과 수상한자들이 늘어놓는 거짓과 허위에 기초하고있다. 형사법의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러한것은 금지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내전에 관한 《가능성균형》리론을 써먹고있다. 이전 로조운동가로서 나는 고용주들이 교묘한 사건들을 조작하여 로동자들을 해임시키거나 그들에게 규률상처벌을 가하기 위해 리용한 이 원리에 대하여 들어왔다. 고용주들이 이 리론을 리용한것도 나쁘며 더우기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철저히 용서할수 없는것이다.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이른바 《인권》비평은 실지 공화국내부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것이다. 이전 쏘련을 실지 방문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소설 2 권을 쓴 악명높은 반공작가인 죠지 오르웰과 같은자들이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수 없다. 물론 이 소설들은 허구작으로 되여야 하였을것이였다.

2015 년 10 월과 2016 년 4 월, 2016 년 9 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면서 나는 신천과 묘향산, 그리고 서해갑문과 같

은 여러곳들을 려행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 기회에 로상에서 지방의 넓은 지역들을 직접 볼수 있는 멋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또한 밤에 평양의 거리들을 산보할수도 있었고 또 지하건늠길들을 비롯하여 시내의 많은것들을 볼수 있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은 기난 몇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내돌리였으며 지어 유엔에서 수많은 반공화국결의안들이 통과되도록 몇몇나라들을 강박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존재하고있다고 주장하는 거대한 《강제로동수용소》들과 《강제수용소》들이 어디에도 없다. 공화국을 방문하면서 나는 그러한것들을 단 하나도 볼수 없었으며 실제상 지방의 그 어느 곳에서도 단 하나의 철가시울타리도 보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많다고 하던 경찰들도 안전일군들도 보지 못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농촌들에서 식량부족과 기아에 빠져있지 않다는데 대하여서도 언급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농촌에는 큰 집들도, 큰 개인부동산들도, 부농이나 지주도 없는 사회적평등이 훌륭한 수준에서 보장되며 그것은 진정한 인민의 농촌, 붉은기 펄펄 높이 휘날리는 사회주의농촌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이 수용소들에 갖혀있으며 그러한 수용소들은 규모가 큰것들이여야 할것이며 또 수많은 간수들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농촌에서 그런것은 단 하나도 보지 못하였다. 더우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단히 평화롭고 조용한 도시로서 번잡한 거리를 헤가르며 달리는 구급차들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것과 같이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인권문제》와 《강제로동교화소》가 존재한다면 마땅히 거리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여 《로동교화소》나 《강제수용소》로 보내기 위해 화물차들에 사람들을 싣는 경찰들과 안전일군들을 보아야겠지만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것을 본적이 없다. 런던에서 자주 맞다들게 되는 중무장한 경찰도 나는 이 거리들에서도, 렬차역들에서도, 비행장에서도 보지 못하였다. 대략적으로는 국회와 대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립법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청사인 만수대의사당 가까이에까지 가서 나는 산보를 할수 있었다. 런던에서 국회주변지역은 운동이 통제되고 무장경찰부대가 순찰하는 금지구역이다. 그러나 평양에서 나는 만수대의사당주변에서 그 어느 경찰도, 안전일군도 보지 못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심단결에 기초하고있는 안정되고 화목하고 단결된 사회로서 테로도, 소요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군대와 인민사이에 단결이 존재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군대들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거나 그들을 멸시하지도 않는다.

나는 거리들에서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는것을 본적도 없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그 누가 체포당하든가 아니면 경찰이 누구를 총으로 쏴죽이는것과 같은것을 본적이 없다. 이른바 《자유의 나라》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에 대하여 떠들고있는 나라인 미국에서 경찰이 아무때나 사람들에게 사격을 가하고있으며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흑인들이다. 영국신문 가디언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경찰에 의해 죽은 사람들의 수는 수백명에 달한다고 전하였다. 영국에서는 완전히 결백한 브라질전기기사들인 챨스데 메네지즈와 마크 드간의 생명을 앗아간데 대한 책임(영국에서

2011년폭동을 유발시킴)을 무장경찰부대가 지고있다.

새롭게 현대화되고 확장된 신천박물관을 참관하면서 나는 누가 진짜 인권유린자인가 하는것을 알수 있었다. 신천군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지역의 계급적원쑤들이 인구의 4분의 1인 35 383명을 살해하는 범죄를 감행한 파멸적인 곳이다.(런던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망자수를 상상해볼수 있겠는가? 2백 2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히틀러나치스들과 다를바 없다고 말하는것은 좀 삼가해서 말하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을 여러차례 목격하면서 나는 공화국의 《강제로동교화소》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주의제도를 비방하고 공화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꾸며낸 엉터리, 어리석은 이야기, 완전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실제상 그 어떤 《인권》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 일할 권리, 지어는 국가의 비용으로 휴가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은 빈종이장이나 그누구의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인권이다.

조선에 대한 수많은 서방의 비평가들은 공화국에서 누구나 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조선로동당을 지지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있다.

현 세계에서 최대의 인권유린국들은 미국과 남조선, 그리고 서방나라들이다.

## 제 6 절. 자력자강의 강국

생각컨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들과 유산들가운데는 경제부문에 주체사상을 실천적으로 구현한 자립적민족경제도 있다.

경제적자립은 자주독립국가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예속되기 마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본보기, 자력갱생의 본보기는 제국주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증오하는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는 1 만개의 수소탄의 위력과 맞먹는다. 자립적민족경제는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국제통화기금》의 어리석은 처방에 대응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룬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자립적민족경제란 한마디로 말하여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이다.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하여야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통치로 하여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졌던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자립적민족경제는 유럽동맹탈퇴에 관한 투표를 진행한 영국에 있어서도 본보기로 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련관되여계신다. 처음부터 그이께서는 자립경제로선을 제시하시였다.

1950 년대말 현재수정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쎄브에 들라고 압력을 가하였다. 하지만 공화국은 이를 배격하고 경제적자립로선을 견지하였다.

쎄브(경제호상리사회의 략칭)는 1949 년 1 월에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기 위하여 만든 경제협조기구였다. 쎄브는 주로 성원국들사이에 무역협정을 비롯한 쌍무적협조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며 경제건설경험을 나누고 경제기술적문제들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을 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쎄브에 들것을 강요하면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대하여 《민족주의적편향》, 《사회주의체계로부터의 고립화》이라느니, 《고립경제》, 《폐쇄적인 경제》라느니 하면서 비방중상하였으며 각방으로 경제적압력을 가하였다.

공화국은 쎄브에 가리워져있는 경제적예속의 올가미를 예리하게 간파하고 현대수정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적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난관을 이겨내면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경제적예

속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다.

만일 공화국이 현대수정주의자들의《통합경제》로선을 받아들였다면 일제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수공업마저 그 발전이 억제당하여 온 조선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공업부문도 창설할수 없었을것이며 다른 나라의 경제에 완전히 예속되였을것이다.

이전 쏘련의 대국주의자들과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를 저들에게 복종시키려고 하였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적자립로선을 견지하시였다.

대국주의자들은 바이깔호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주는것으로 공화국을 유도하여 쎄브에 들도록 하려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브라쯔크수력발전소에서 우리 나라까지 전기선을 늘일 자금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 나라에 수력발전소를 하나 더 건설하는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가 쎄브에 들지 않고 자력갱생하여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한것이 매우 정당하였다는것이 더욱 명백해집니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선차적인 요구로 제기된다.

자력갱생이란 자기 힘으로 일떠선다는것이다. 자기 힘을 믿고 이악하게 투쟁하면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다.

조선에서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킨 영웅적투쟁기풍은 자력갱생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였다.

이 시기 조선인민에게는 자재와 자금도 엄청나게 모자랐고 로력사정도 매우 긴장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형편도 어려웠다. 이러한 때 일부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전진속도를 늦추자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의 원조만 바라고있었다.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더 많았던 어려운속에서도 조선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폭탄을 만들어 원쑤들을 족치던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갔다.

자력갱생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속에 자기의 자재, 자기의 기술, 자기의 손으로 전기기관차, 기중기, 굴착기, 불도젤, 대형공작기계들을 짧은 기간에 생산해내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은 중소규모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발휘되여 한해사이에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으로 국가계획외에 13 000여대의 공작기계가 더 생산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러 분야들에 자력갱생을 구현하였다. 공화국은 1960년대에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였다.

공화국은 리승기박사가 발명한 《주체섬유》비날론을 생산하였다. 비날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풍부한 석회석으로부터 생산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또한 콕스탄에 의거하지 않는 철생산방법을 찾아냈다.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추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놀라운 비률로 장성하였다. 1956년 1960년사이 공업총생산액은 년 36.6%로 장성하였으며 1956년 1970년사이에 공화국의 경제장성률은 19.1%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하였다. 사회주의공업화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은 년 19.1%로 놀라운 속도로 장성하였다.

2008년 12월 24일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면서 이

봉화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지펴올려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난관과 시련이 겹쌓여도 자력갱생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있는한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긍지높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09 년 1 월 우리는 앞으로도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도 자력갱생으로 지펴올리고 강성국가의 대문도 자력갱생으로 열어제끼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손목시계로부터 기관차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생산할수 있는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다.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산인 공화국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자체의 핵무기들도 만들수 있으며 국내기술과 자원으로 자체의 인공위성을 발사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고 또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과 유럽동맹, 국제통화기금의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을 계승하고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틀어쥐고나가고계시며 또 위대한 자강력제일주의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력자강의 정신은 조선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공화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그 원동력은 자강력이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

누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조선이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적들은 조선의 힘이 강해지는것을 제일 두려워하고있으며 최후승리에로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자면 바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에 도전하여 려명거리를 건설하였다.

려명거리는 미래과학자거리에 비해 그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2.5 배나 된다. 현대형건축형성의 본보기, 표준으로,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선 려명거리는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105 돐에 드리는 가장 큰 로력적선물이다.

이번에 조선이 려명거리의 완공을 보란듯이 선포한것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힘으로 조선을 어쩔수 없게 되자 그 무슨 《초강경제재》놀음을 벌려놓으면서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미쳐날뛰고 있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반동들의 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때에 조선이 려명거리를 완공한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억센 신념과 의지를 세계앞에 그대로 보여준것으로 된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의 빛나는 모범이다.

자력자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미제와 세계제국주의의 제재책동을 분쇄하도록 할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공화국이 자립적민족경제를 포기하고《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재난으로 될것이다. 공화국이 《개방》을 하게 되면 미국의 속국으로. 세계제국주의의 속국으로, 《세계화》된 세계의 한 부분으로 될것이다. 이것은 《개방》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 《개방》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사회주의를 지킬수 없게 하고 조선인민을 제국주의식민지노예로 만들게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자강력제일주의사상은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으며 지어 제국주의보도매체들도 이에 대하여 평론하고있다.

2016 년 신년사에서 조선로동당 제 1 비서(당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력자강의 필

요성을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강력은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경제에서 자립을 강화하고 수입병을 뿌리뽑기 위한 고리라고 지적하시였다. 2015 년 전기간 그이께서는 수입의존경향을 비판하시였다.

그에 화답하여 조선인민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내달렸다. 항공산업로동자들은 국내자재로 비행기를 만들어냈으며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자들은 자체의 자원과 기술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내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선물로 드린 제품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다시 시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오직 우리자체의 힘만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밀고나가야 하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이 담대하고 결정적인 선언은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제재를 물리치고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자강력제일주의사상은 조선혁명의 자력갱생의 원칙의 발전이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력사이다.

조선혁명의 매 단계마다 자력갱생의 원칙이 적용되였다. 항일혁명전쟁이 벌어지던 1930 년대에 일부 항일유격대원들은 첫 로동자, 농민의 국가인 이전 쏘련이 수류탄공장을 제공해줄것이라고 기

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공장은 마련되지 않았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연길폭탄이라는 자체의 수류탄을 생산하였다.

2016년 4월 평천혁명사적지를 참관하면서 우리는 여러개의 연길폭탄을 보았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연길폭탄을 만드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연구하시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였다. 바로 이 평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력갱생의 군수공업의 토대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기들을 수입하거나 외국의 부분품들을 조립할것이 아니라 자체의 무기를 만들어내도록 하시였다. 1940 년대말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의 강선무기와 경기관총, 그리고 박격포들을 생산하고있었다.

자강력이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빈터우에서 100 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떠벌이던 미제에게 철추를 내리며 복구건설을 단 몇해사이에 끝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14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1967 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연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압력에 대처하여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제국주의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살아나가려는 조선의 의지를 선언한 담대한 구호, 전투적이

며 혁명적인 구호이다. 이 구호는 대국주의자들이나 미제에게 구속되지 않고 사회주의를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으로 건설하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적신념의 과시였다.

이 구호가 나왔을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 남조선괴뢰들의 책동과 함께 현대수정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혹심한 압력에 직면하고있었다. 사회주의건설을 혼란시키려는 이러한 겹쌓이는 책동들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높은 자력의 정신이 필요하였다. 그것은 시대의 요구였다.

1990 년대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할수 있은것도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자강력의 철리가 신념의 기둥으로 억세게 세워져있었기때문이다.

본질적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사상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력갱생과 자립적민족경제사상을 모두 담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사상은 주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을 강화하고 자기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사상이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커다란 결실을 가져왔다. 공화국은 다른 나라들에 자기의 위성을 쏘아달라고 돈을 지불하는것이 아니라 자체의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릴수 있게 되였다.

100 여년전에는 단순한 강선무기만을 생산할수 있었던 나라 조선이 오늘날에는 5 차례의 핵시험을 단행한 자랑스러운 자주적인 핵강국으로 되였다.

현재 미제국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 그리고 자본주의복귀자

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재와 봉쇄,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으며 지어는 공화국의 사회주의발전을 저해하기 위해 음흉한 책동들에 매달리고있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새로운 조선속도, 만리마(한달음에 만리를 달린다는 전설적인 말)속도로 돌진하고있다.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려명거리와 같은 큰 거리들과 과학기술전당과 같은 대규모종합체들도 수많이 건설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4 월 3 일부 성명 《그 누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질식시키려는 날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초강도제재>는 주체조선을 천하에 둘도없는 자립, 자력, 자강의 위대한 강국으로 전변시켰다.》고 전하였다.

가끔 이른바 《번영하는》남조선과《조선의 기적》이라는 상투어들이 쓰이군 한다.

사실상 반동들은 유명한 캠브리쥐의 경제학자인 교수 죤 브이 로빈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설명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조선의 기적》이라는 말을 썼다는것을 모르고있다.

1964 년에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11 년전 평양에는 성한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사람들은 인구 일인당 폭탄 한개, 한톤 혹은 그이상이 떨어졌다고 보았다.) 오늘 5 층짜리 주택들과 공공건물들이 자리잡은 가로수를 심은 넓은 거리들과 경기장, (전쟁에서 파괴되지 않은 지하층을 가진)극장과 초호화호텔을 가진 백만의 주민들이 살고있는 현대적인 도시가 넓은 강의 량쪽에 서있다. 공업부문은 수많은 현대적인 방직공장들과 방직기계공장을 가지고있다. 강의 폭넓은 흐름과 키낮은 나무들로 뒤덮힌 언덕들이 공원과 같이 유쾌한 전경을 보존하고있다. 도시에는 빨리도 건설된 작은 재색, 하얀색의

집구획들이 있고 그 사이의 길들은 깨끗하고 밝았으며 또 수도화가 실현되였다. 빈민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도시이다.》

동방 및 아프리카연구소 강사인 영국의 저명한 사회과학자 맥콤 갤드웰은 자기의 도서 《일부 민족들의 재부》에서 1954 년부터 1970/1971 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업생산액장성률은 23.5%인 반면에 남조선은 15.3%로서 공화국의 장성률은 50%나 더 높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농업부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구 일인당 쌀생산량은 230 그람, 남조선은 123 그람으로서 공화국의 생산량은 거의 두배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펑장한 액수의 대부금을 빼앗기고 또 미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자본주의경제에 통합된 남조선은 붕괴될것이지만 주체의 북조선은 영원히 자주적으로 살아갈것이다.》고 결론하였다. 이 분석은 1998 년에 남조선의 경제가 완전한 파산에 직면하여 국제통화기금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실로 하여 확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전 존재기간 온갖 제재와 봉쇄에 맞서 싸웠다. 남조선이 자기의 시장을 벗어나게 되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할것이다.

주체조선에서 로동계급은 사회의 주인이며 국가사회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이것은 로동계급이 모든것의 주인, 다시말하여 정부와 자산의 주인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일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각급 당, 국가, 정권기관, 공장과 기업소들, 그리고 협동농장들의 책임적인 일군들로 일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시책과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정권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하여 조선의 사회는 하나의 큰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무료의무교육과 무상치료와 같이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참

다운 인민적특전이 돌려지고있다.

1956 년부터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으며 1958 년부터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 1967 년부터 전반적 9 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으며 1972 년부터 전반적 11 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 1972년부터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를 점차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1975 년부터 완전히 실시하였다. 2012 년부터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으며 2014 년부터 실시하였다.

조선에서는 해방직후인 1947 년부터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1953 년 1 월 1 일부터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다. 1960 년 2 월부터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여 입원치료, 외래치료, 왕진치료, 진찰, 실험검사, 기능진단, 수술, 예방접종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와 료양의료봉사가 무료로 진행되고있다.

그리고 세금은 벌써 썩 이전에 철폐되였다.

1966 년 4 월 최고인민회의 제 3 기 제 5 차회의에서는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1974 년 3 월 21 일 최고인민회의 제 5 기 제 3 차회의에서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가 채택됨으로써 4 월 1 일부터 세금제도가 완전폐지되였다. 그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70 년대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다. 세금없는 나라는 세상에 오직 조선뿐이다. 이것도 역시 세계적인 기적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년간 조선에서 일떠서고있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놓고도 조선의 기적에 대하여 설명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떠선 자랑찬 창조물들을 년도별로 보기로 하겠다.

2012 년에 금수산태양궁전이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 단천항, 곽산간석지 2 계단건설,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건설, 창전거리, 인민극장, 만수교고기상점, 보통강수산물상점, 릉라인민유원지, 양각도체육촌,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 통일거리운동쎈터, 류경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평양창전소학교, 경상유치원과 경상탁아소 등이 새로 일떠섰으며 김형직사범대학,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 등이 개건되였다.

2013 년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마식령스키장,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등이 새로 일떠섰으며 평양체육관이 개건되였다.

2014 년에는 갈마식료공장,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연풍과학자휴양소,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등이 새로 일떠섰으며 5 월 1 일경기장, 경기용총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이 개건되였다.

2015 년에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갈마비행장, 원산육아원과 애육원, 평양양로원,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평양강냉이가공공장,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창광상점, 백두산영웅청년 1 호, 2 호발전소, 라선시 선봉구역 백학동,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조국해방전쟁사적지, 신천박물관이 새로 일떠서고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건조되였으며 평양메기공장과 평양어린이식표품공장, 평천혁명사적지, 원산구두공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이 개건되였다.

2016 년에는 백두산영웅청년 3 호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 홍건도간석지(1 단계), 황해남도물길(1 단계), 조선인민군 제 122 호양묘장, 자연박물관, 류경안과종합병원, 평양중등학원, 청년운동사적관, 보건산소공장, 평양체육기자재공장, 민들레학습장공장 등이 새로 일떠섰으며 **김일성**경기장,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중앙동물원등이 개건되였다.

수많은 창조물들을 통하여 만리마의 속도로 질풍노도쳐 내달리는 조선의 기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령도하고계신다.

전체 인민이 불타는 혁명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10 년을 1 년으로 주름잡으며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신비로운 속도로 강산이 변하고있다.

2016 년에 만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리는 200 일전투의 철야진군속에서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가 열리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2015년 10월과 2016년 4월과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면서 나는 공화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발전속도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였다.

자강력제일주의사상은 놀라우면서도 단순한 론리에 기초하고있다. 나라가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지 않고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그 나라는 방대한 자원소모인 수입에 굉장한 액수의 자금을 소비하여야 한다. 수입을 안하는것으로 하여 저축된 자금은 학교나 병원, 살

림집 등을 건설하는데 리용될수 있다. 자력자강은 참신하고도 지속적인 번영으로 가는 해결책이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할 때 우리는 다람쥐들은 자체의 힘으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결심을 가지는데 건달군 곰들은 발전소 수입을 주장하다가 코끼리들이 발전소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더 많은 과일을 요구하여 난처한 처지에 빠지는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공연을 보았다.

적지 않은 나라들은 략탈과 착취, 억압을 위한 제국주의의 수단인 이른바 《원조》로 경제를 건설하려 하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서방나라들로부터 상품들을 수입하고있지만 그것을 물기 위해서는 또 대부를 받아야 하며 그것은 종당에는 엄청난 채무로 되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다시 물수도 없게 될, 또 물어주기 불가능한 채무에 시달리고있다. 실례로 남조선은 4 353 억 5 300 만 US$의 대외채무를 지고있는바 이것은 인구 일인당 7 567 US $에 달한다. 제국주의에 추종하고 그의 처방과 명령을 받아들인 수많은 나라들이 종당에는 파멸을 당하고말았다.

실례로 웹싸이트 《3 세계려행자》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빈궁한 나라들로 하여금 다국적기업들의 해외투자에 국경을 열게 하여 그 나라들의 경제를 수출에로 지향시키고 국가기업들을 사영화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은 이 나라들이 공업화된 세계에 예속되여있도록 하였다.

구조조정은 제 1 세계에 의한 제 3 세계의 착취가 계속되도록 하고있다. 모든 보호무역장벽의 철페와 경제의 수출화는 공업국들의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려는 제 3 세계의 노력을 좌절시키고있다. 수출력에 대한 의존은 빈궁한 나라들로 하여금 발전된 세계에 자기들의 원료를 공급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자기들의 채무

를 갚기 위한 제 3 세계 채무국들의 계속되는 노력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대부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민족들에 자기들의 재부를 계속 퍼주고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와 같은 많은 서방의 유럽나라들이 경제장성을 추동하기 위해 국제금융자본으로부터 돈을 꾸었지만 종당에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부를 요구하는 채무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스의 실업률은 25%이며 채무는 국민총생산액의 175%에 달한다. 이것은 경제발전을 위해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것이다.》

자강력은 사회주의를 철저히 수호하고 전진시킬수 있게 하여준다. 제국주의자들과 자본가들, 수정주의자들과 사회주의원쑤들과 배신자들은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를 은밀히 파괴하게 하는 《개방》과 《개혁》을 하기를 바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자강력에 관한 사상은 공화국을 외부의 지원이 없이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이러한 기대들을 반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평양에서 사무소들을 개설하는 흡혈귀같은 제국주의은행들과 국제금융자본가들을 보고싶겠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외국은행이 없으며 또 공화국은 그런것을 필요로 느끼지 않는다. 자강력제일주의사상은 제국주의와의《협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수정주의사상을 배격하는것으로 하여 철저한 반수정주의적인 사상으로 된다.

자강력제일주의사상은 철저한 반제, 반자본주의, 반세계화사상이다. 자강력제일주의사상은 제국주의와 《세계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을 고무하여주는 기치이다. 자강력제일주의사상은 제국주의 《원조》와 《협력》이 없이 자주적인 경제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국주의와 그의 은행들, 다국적회사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자력갱생을 1 만번의 핵시험보다 더 두려워하고있다. 다른 나라들도 제국주의자들과 착취자들을 배격하고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범을 따른다면 제국주의세계를 상당히 약화시킬것이다. 또한 수백만 사람들이 실업자로 있을 때 국내에서 생산할수도 있는 많은 제품들을 수입하고있는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도 자강력제일주의사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체사상과 전통적인 조선의 자력갱생방식에 기초하고있는 자강력제일주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오늘 조선인민은 사회주의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만리마의 속도로 돌진해나가고있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기치아래 보다 더 번영할것이다.

주체조선 비방자들이여, 입을 다물라!

# 제 7 절. 동방의 핵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바래서도 아니고 또 다른 나라들의 령토를 정복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것이 아니라 미제와 세계제국주의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제국주의나라들의 핵무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로동자폭탄》 또는 《인민폭탄》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또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자기 도시와 마을들이 폭격을 당한 지난 조선전쟁의 력사를 되풀이하려하지 않고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미제는 1945 년 8 월 6 일과 9 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혹심한 피해를 입혔다. 버섯구름이 몰아온 피해로 히로시마에서 파괴, 손실된 면적이 13k㎡, 피해가옥이 약 7 만호, 사망자가 약 26 만명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핵무기가 인류에게 얼마나 무서운 참화를 가져다주는가를 보여주었다.

조선과 같이 그처럼 오랜 기간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나라와 민족은 이 세상에 없다.

미국은 1 만여기이상의 핵무기들을 가지고있으며 두번이나 핵무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반제적인 나라들이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체의 핵무기를 개발하여야 하는것은 정당한것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미제국주의자들은 핵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협하였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그 사용을 고려하였다.

조선전쟁시기인 1950년 11월 30일 트르맨은 직접 미전략항공대에 원자탄투하준비를 갖출데 대한 지시를 주었다. 12월에 미극동사령관 맥아더는 해외로부터 원자탄을 탑제한 항공모함을 인천으로 끌어들이였다.

조선전쟁에서 미국의 패배가 명백해지자 미국의 전쟁상인들은 《대규모보복전략》에 대하여 떠들어댔다. 정전된 직후인 1953년 8월 미국은 조선반도북부지역에 대량의 핵폭탄들을 투하하고 핵전쟁을 일으킬것을 노린 극비계획 《8-53》을 작성하였다. 조선전쟁이후 미국은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과 1976년 판문점사건이 일어난 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고려하였다.

근본적으로 미국은 해외로부터의 모든 전쟁장비들의 남조선반입을 금지할데 대한 1957년 6월 정전협정 13호를 위반하고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들임으로서 규정을 어긴 유일한 나라, 조선반도《핵문제》발생의 장본인이다.

1958년 1월부터 미국은 남조선에 Honest John 핵미싸일들과 280mm 원자포, B-61 핵폭탄등을 끌어들이였다.

랭전시기에 미국은 1만 3 000개의 핵무기를 해외에 배비하였는데 그중에서 6 000개이상이 조선반도주변과 아시아에 배비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극동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였다.

1980년대 말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은 빠나마, 소말리아, 이라크,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많은 민족들을 침략하고 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반도핵문제를 조작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고립압살할것을 획책하였으며 그로부터 1990년대와 2000년대에 2차례의 《조선핵위기》를 일으켰다.

1968년 7월 1일에 조인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1967년을 계선으로 하여 당시까지 핵무기를 가지고있던 이전 쏘련,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에 대하여서만 핵무기보유를 인정하고 그밖의 나라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것을 금지하고있는 심히 불평등한 조약이다.

1980년대 중엽에 5개 핵보유국들의 핵탄두수가 6만개를 넘은 사실은 핵보유국들의 핵군비확장을 방임하고있는 이 조약의 부당성을 명백히 알수 있게 한다.

페르샤만전쟁이후 군사력만능의 힘의 론리에 더욱 환장이 된 미제는 1993년 1월 26일에는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다는것을 공포하고 사상최대규모의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을 벌리였다.

미제는 이 연습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 일본의 미군기지들에서 신속반응전개무력을 비롯하여 20여만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토마호크순항미싸일, 《F-117》스텔스폭격기, 핵폭탄투하를 전문으로 하는 《B-1B》전략폭격기를 출동시켰으며 지어는 핵무기사용시의 지휘통신체계까지 발동시키였다.

이리하여 조선반도의 핵위기를 극한점으로 몰아가고 어느 시각에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였다.

미제가 핵무기까지 휘두르며 조선을 먹어보려고 접어드는 조건에서 미제와의 군사적대결에 어떻게 맞서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이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93년 3월 8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 제0034호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를 하달하시였다.

온 나라가 준전시상태로 넘어간 가운데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부

대들과 조선인민경비대 전체 대원들은 멸적의 기세드높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조국의 땅과 바다, 하늘을 금성철벽으로 지켰다.

뒤이어 1993 년 3 월 12 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이 발표되였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공갈책동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특별사찰강요에 대처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응당한 조취였다.

공화국의 이러한 대응은 미국을 당황하게 하였으며 종당에는 회담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미국에게는 실지 아무런 선택도 없었다. 결국 1994 년에 10 월 21 일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게 되였다.

조미기본합의문에서 조선은 흑연감속로와 그 련관시설들의 동결과 해체, 비핵화의지의 표명, 핵전파방지조약복귀를 담보하였다.

그 대가로 미국은 2003 년까지 총 200 만 KW 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 (약 40 억 US$)제공과 그전에 매해 50 만 t 의 중유납입, 무역 및 투자장벽의 완화와 련락사무소설치, 국가관계수립, 핵무기의 불사용과 핵무기로 조선을 위협하지 않는다는것 등을 약속하였다.

이보다 하루 앞서 10 월 20 일 당시 미국대통령 클린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라고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그이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책임적으로 리행할것을 다짐하는 담보서한을 드리였다.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됨으로써 핵문제를 걸고 조선을 압살하려던 미국의 정책은 물거품이 되고말았으며 세계유일초대국, 핵대국이라고 자처하던 미국은 조선과의 핵대결에서 무릎을 꿇고말았다.

그러나 미국은 경수로제공에서부터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조미기본합의문에는 합의문에 서명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경수로제공계약을 맺게 되여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14개월이 다 되여서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당한 구실을 붙여가며 경수로건설을 지연시켜왔다. 미국의 그릇된 처사와 책동으로 하여 2003년까지 제공하게 되여있는 경수로의 건설은 기초구뎅이를 파놓은데 불과하였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 제3조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제공하게 되여있었다.

2002년초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부쉬는 일반서신연설에서 북조선은 《악의 축》을 이루고있는 나라라느니, 대량살륙무기를 개발하고있는 나라라느니 하면서 조선을 걸고들었다. 2002년 10월초 미국대통령특사인 미국무성차관보 켈리의 평양방문이후에 미국은 조선이 농축우라니움계획을 추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조미관계는 물론 북남관계와 조일관계도 파국적상태에 들어갈것이라고 위협해나섰다. 미국은 11월 14일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해오던 중유제공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한데 뒤이어 12월부터 실제적으로 중유납입을 중단하였다.

이리하여 실제상 조미기본합의문은 완전한 파기상태에 들어가게 되였으며 적들의 책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결국 조미기본합의문은 미국으로 하여 성실히 리행되지 못하였으며 또 체계적으로 무효로 되였다. 종당에는 《불량배국가》와 《악의 축》에 대해 떠들어대며 제2의 핵위기를 일으킨 부쉬에 의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은 파기되고말았다.

미국의 가중되는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에 대처하여 조선은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초강경으

로 나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완전탈퇴와 공화국의 핵국가선언과 같은 련속적인 강경조치들로 대답하였다.

그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에 핵시험들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핵무기는 100% 조선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의 산물이였다.

조선반도핵문제의 장본인, 그것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기때문에 공화국은 자체방위를 위하여 부득불 핵을 보유하는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결국 조선의 핵보유는 미국이 떠밀었다고 할수 있다.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을 벌리고있는 조선이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열백번 정당하다.

지난 시기 미제는 조선을 반대하여 핵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려고 여러 차례나 시도하였다. 만일 조선이 힘이 약했더라면 그 방아쇠가 당겨진지도 오랬을것이다.

그렇게 되였으면 조선인민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조선반도정세는 어떻게 되였겠는가?

아마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되고 조선반도는 지난 세기 말엽의 발칸반도나 새 세기 초엽의 아프가니스탄처럼 되였을것이다. 그것도 인류가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가장 파국적인 핵전쟁으로 력사에 기록되였을것이다.

선군으로 다져진 힘이 강하기때문에 미국은 감히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지금까지 유지되고있는것이다.

국제사회가 조선의 핵억제력을 가리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믿음직한 담보라고 하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조선의 핵억제력은 지구상 그 어느곳에 있든 침략의 본거지를 정밀타격하여 소멸할수 있는 신뢰성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있다.

미국은 우리 행성에 핵참화를 들씌운 유일한 핵전범자이고 핵무기를 제일먼저 만들고 가장 많이 가지고있는 악의 제국이며 그러면서도 비핵화와 핵전파방지를 요란스럽게 떠드는 파렴치한 나라이다.

핵무기는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해 핵공갈을 일삼던 시대는 영영 끝장났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말이나 청원이 아니라 오직 자체의 강위력한 힘에 의하여 지켜야 한다.

조선의 현실은 바로 이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정책은 선군정치에 의하여 사상적으로 안받침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2013 년 3 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하여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적들이 핵으로 우리를 공갈하던 시기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 힘이 약하게 되면 아무리 정직하고 정의롭다 하더라도 강국들의 흥정물로밖에 될수 없으며 피로써 지킨 자기의 귀중한 력사도 한순간에 그 빛을 잃게 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 년 1 월 6 일에 진행된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하였다.

6월에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의 시험발사가 대성공했고 8 월의 선군절을 앞두고 전략잠수함 탄도탄 《북극성》의 수중발사가 완전성공하였으며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인 9월 9일에는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 핵시험을 비롯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군력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졌지만 적들까지도 아연해할 정도로 수소탄시험을 성공한 해에 소형화된 핵탄두도 실물로 공개하고 전략적인 핵타격수단들의 실전과 같은 발사훈련까지 여러차례 진행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세계적인 군사대국. 핵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1952년 11월에 수소탄시험에 성공하고 7년만인 1959년에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을 진행하였다. 이전 쏘련은 1953년에 8월에 수소탄시험에 성공하고 1957년 8월에 세계최초로 대륙간탄도미싸일의 시험에 성공하였다. 중국은 1967 년 6 월에 수소탄폭발에 성공한 후 13년만인 1980년에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에서 성공하였다. 이 나라들이 잠수함을 리용한 운반로케트수중발사에 성공한것도 다 그로부터 몇년후이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국들이 한 이 모든 공정을 한해도 아닌 9 개월사이에 그보다 월등한 수준에서 다 과시하여 세계군사과학계를 깜짝 놀래웠다.

세계군사과학계를 깜짝 놀래운 이 거대한 사변들로 하여 조선은 일약 세계의 군사대국, 동방의 핵강국으로 떠오르고 조선을 절대변수로 하는 새로운 력학구도가 세워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5 번째 핵시험을 진행할 당시 나는 공화국을 방문하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 돐에

즈음하여 2016년 9월 9일 공화국은 5번째 핵시험을 진행하였다.

9월 9일 오후 내가 봉화예술극장에 금방 도착하였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탄두시험에서 성공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후 나는 TV에서 리춘희방송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성명을 랑독하는것을 보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는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전략적핵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계획에 따라 그들이 새로 연구개발한 핵탄두의 위력을 판정하기 위한 핵시험을 북부핵시험장에서 진행하였다. 핵탄두폭발시험은 당당한 핵보유국인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무턱대고 부정하면서 주권국가의 자위권행사를 걸고들기 위해 무분별하게 날뛰는 미국주도하의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위협과 제재책동에 대한 실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조선로동당의 강경한 립장을 과시하였으며 적들이 만일 도발을 일으킨다면 적들을 보복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서방의 두뇌진의 여러 전문가들은 핵탄두폭발시험은 이전의 핵시험들의 두배에 달하는 20-30Kt급의 시험으로 평가하였다.

선군조선의 또 다른 이 위대한 성과, 정의의 또 다른 핵천둥은 미제에게 내려졌다!

새로운 력사가 창조되는 시기에 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은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나는 핵시험이 진행된 다음날인 토요일에 나의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애는 나에게 영국의 보도매체들이 핵시험을 두고 히스테리적인 보도들을 하고있다고, 나에 대해 걱정하고있었다고 말하였다. 제국주의세계에서 일어난 히스테리와는 달리 평양의 분위기는 완전히 정상적이면서도 평화적인것 같았다. 히스테리도, 공포도, 그

리고 전쟁에 대한 말도 없었다. 누구나 평온해보였지만 실지 조선인민은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되는 길에서 자기 나라가 또 다른 의의있는 전진을 이룩했다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있었다.

9월 6일 내가 평양에 도착하였을 때 나는 저녁에 TV를 통하여 대륙간탄도미싸일도로발사시험을 볼수 있었다.

시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참석하에 진행되였다. 대담한 광경이였다. 미싸일들이 하늘로 하나, 둘 장엄하게 솟구쳐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군의 주체적화력의 과시였다.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위협을 가해왔으며 맑은 아침의 나라를 파괴하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반타격을 안길수 있는 강력한 선군핵타격력을 강화하게 된것이다. 미국이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영국, 일본 등이 이를 좋아하든 안하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 강위력한 억제력을 가진 당당한 핵강국으로 되였다.

5차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도로발사는 미제와 세계제국주의에 개의치 않고 진행되였다.

저들의 시행기관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들이대였다. 자본주의와 수정주의의 영향하에 있는 주변대국들도 《침착성》과 《제지》, 그리고 《정세를 보다 악화시키게 될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데 대하여 떠들어대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6년 1월 수소탄시험이후 다른 핵시험들을 더이상 진행하지 말데 대한 압력을 가하였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강철의 령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고있는 인민조선은 그 모든 압

력들을 물리치고 5차핵시험을 단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5 차핵시험은 공화국의 자주성과 자기를 지키려는 공화국의 의지를 과시하였다. 그가 누구이든, 누가 어떤 소리를 한다고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정책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최고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정당한 정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무비의 담력에 의하여 2016 년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핵억제력과 전략공격수단들을 주체조선이 다 가지게 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다.

# 제 3 장.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을 부정적으로 대비하는것은 오래동안 반동적인 사람들속에서 대류행으로 되여왔다. 물론 그러한 반동들은 남조선은 미군이 강점한 자주성이 없는 나라이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독립국가이고 령토에 단 한명의 외국병사도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고있다.

남조선은 정치적자주성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이다.

정치적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징표이다.

남조선에서 대내외정책의 결정을 좌우하는것은 인민들이나 《정부》가 아니라 대양건너의 백악관이다. 《대통령》감투를 누가 쓰는가 하는것이 미국에 의해 결정된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남조선에서 친미주구 리승만이 꺼꾸러진후 박정희를 쿠테타에로 내몰아 권력을 강탈하게 한것도, 박정희가 사살된후 전두환을 내세운것도 바로 미국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력대 괴뢰대통령들은 취임하면 먼저 대양건너 미국상전을 찾아가 부임인사를 하고 예속관계를 확약하며 상전의 훈시를 받는것이 하나의 어길수 없는 관례로 되여있다.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대통령》이건 뭐건 불러다 마구 호통을 치고 지어 목을 떼고 죽이는것도 서슴지 않는다. 1979년 10월의 박정희사살사건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미국이 남조선과 그 무슨 《정상회담》이라는것을 진행하고있지만 그것은 사실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고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요구를 내리먹이기 위한것일뿐이다. 남조선의 쌀시장개방, 소고기시장개방과 미국의 해외침략전쟁에 대한 괴뢰군파병, 남조선강

점 미제침략군의 유지비증액도 다 그렇게 이루어진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의 《대북정책》이라는것도 미국의 리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데 복종되고있다. 이전 남조선당국자의 《신뢰프로세스》라는것을 놓고보아도 그것은 《북핵포기》를 위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그대로 모방한것이다. 괴뢰들이 쩍하면 미국상전의 날강도적인 《북핵위협》나발을 앵무새처럼 되받아넘기는것도 고질화된 외세의존적체질의 발로이다.

군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있는것을 놓고도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군통수권의 행사여부는 독립국가와 식민지예속국을 가르는 중요한 징표이다. 군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독립국가이기를 포기한것이나 다름없다.

남조선괴뢰군은 외세에게 군통수권을 통채로 떠맡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꼭두각시군대이다. 남조선의 그 무슨 《헌법》이라는데는 군통수권자가 《대통령》으로 되여있지만 그것은 한갖 인민들을 기만하는 공문서에 불과하다. 괴뢰군의 실제적인 통수권은 미국에 있다.

미국의 한 출판물은《미국의 납세자들은 남조선에 우리 나라의 투자를 지키는 훌륭한 번견으로 되는 군대를 가지고있으며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힘이다.》라고 쓴적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도 남조선괴뢰군이 미제의 값싼 고용군, 총알받이에 불과하다는것이 립증되고있다.

지구상에 미국의 해외군사기지가 수없이 많지만 남조선처럼 미군의 주둔비용과 군사기지이전비용까지 섬겨바치는 곳은 없다. 2012년에 돌려받기로 되였던 전시작전통제권을 안받겠다고 하면서 2015년까지 연기한것도 모자라 또다시 그것을 무기한 연장해보려고 상

전에게 애걸복걸하는 이전 남조선당국의 추태야말로 식민지하수인의 가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은 미국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되여있다.

미국은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막대한 치부를 하고있으며 그로하여 인민들의 생존권은 엄중한 위협을 당하고있다. 지금 미국주도의 외래독점자본은 남조선의 큰 기업들과 은행들의 경우 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하고 남조선경제를 저들의 입맛에 맞게 좌우지하고있으며 주식배당금명목으로만도 해마다 수십억 US$의 리득금을 걷어가고있다.

1970 년대에 서방의 경제학자들인 엘렌 브른과 잭크 퍼시는 《남조선경제전략의 기본약점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자체의 힘에 의존하지도 않고 또 국내에서 생기는 잉여를 동원하지도 않고있는데 있다.》고 썼다. 다시말하여 남조선은 자력갱생이 없으며 또 주체와 완전히 대조적이다.

남조선경제는 철저히 예속경제이며 식민지경제의 현대판이다. 남조선경제는 극도로 균형을 잃었다. 실례로 남조선의 국내총생산액의 50%는 대외무역에서 나온다.

남조선괴뢰경제의 의존성을 보여주는 몇가지 사실자료들을 간단히 보기로 하자.

남조선의 대외채무액은 3 천 700 억 US$(인구 일인당 7 400US$)이며 국내채무액은 3 천 190 억 US$에 달한다. 남조선의 채무는 1998 년 국제통화기금의 긴급구제때보다 훨씬 더 많은것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압제적인 국제조직들에 구속되지 않고 자주적인데 비하여 남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이 조종하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G20 과 오페크에 매여있다.

남조선은 미국과의 수많은 예속적인 무역협정들을 체결하였으

며 최근에는 이른바 《자유무역협정》이라는것을 미국과 유럽동맹과 체결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은 수많은 실업자들과 함께 경제주권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남조선은 국제독점적자본주의의 다국적기업들의 활동령역으로 되였다. 싼탠더에 의하면 남조선에 대한 해외투자총액은 1 740 억 US$에 달한다. 많은 남조선회사들이(미국의 로운 스타가 사들인)조선환자은행이나 외국은행들이 관련이 있는 신한회사나 82%를 외국이 소유한 삼성회사와 같이 전적으로 해외자본이 소유한것들이다.

이 모든 회사들이 매해 남조선으로부터 수십억 US$을 빨아내고 있다. 남조선경제가 해외자본에 의존한 결과의 하나가 바로 저임금경제이다. 브른과 헤리쉬는 1976 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국내사회정세가 어떠하든지간에 해외투자에 호소하여야 하며 또 해외자본을 계속 끌어당겨야 하였다.》

남조선에 있는 주요 미국대독점자본을 몇가지만 들어보아도 거기에는 제너랄 모터스, 포드, 아이비엠, 마이크로쏘프트, 헬레트 팩커드, 맥도날즈등이 있다. 또한 카시오, 쿠보타, 미쯔비시와 같은 일본회사들도 있다. 미국과 일본대독점자본외에도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 에스빠냐, 이딸리아, 스위스, 그리고 지어는 이스라엘까지도 남조선에 경제적으로 침습하였다. 남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의존적이며 외세에 의하여 가장 많이 지배되고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남조선은 빈궁과 주택문제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문제들을 안고있는 저임금경제, 고도의 착취경제로 잘 알려져있다. 700 만세대가 자기의 집이 없이 살아가고있으며 680 만세대들이 오두막과 반토굴에서 살고있으며 120 만의 어린이들이 거리들에서 자기들의 로동력을 팔고있다. 배움에 관한 문제에서 본다면 남조선에서는 유치원에서 고중학교를 졸업하는데 11 만 5 000US$가 있어야 한다.

미국독점자본이 물밀듯 쓸어들어와 판을 치는 바람에 기업이 련이어 파산당하고 남조선인민들은 실업과 빈궁속에서 허덕이고있다. 남조선에서 700여만세대가 제집이 없어 뜨내기살이를 하고 1 000여만명의 빈곤층이 삶의 막바지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는것도, 곳곳에서 각종 범죄행위가 감행되고있는것도 식민지예속경제가 낳은 비참한 현실이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가 남조선의 사회현실을 개탄하며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남사회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혼란, 부패의 악순환이 거듭되여온 근본원인은 바로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있다.》고 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는것은 언어생활을 놓고 보아도 알수 있다.

자기의 고유한 말과 글을 두고서도 종주국의 언어를 써야 하는것은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이다.

남조선의 언어학자들이 남조선에서 쓰이고있는 생활용어 1 643개를 조사분석한데 의하면 고유한 조선말은 불과 5%이고 95%가 외래어와 잡탕말로 되여있었다.

남조선에서 한개 일간신문에 하루 표기되는 외래어단어수는 평균 800여개에 달하고 서울시내의 간판에 조선글이 씌여진것은 고작 12. 7%에 불과한 사실은 언어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사회의 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여 끄물만한 자주성도 독자성도 없는것이 바로 남조선의 현실태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내기 위해 투쟁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

하다.

2016 년에 정부가 운영하는 대학들의 년등록금은 5 000US$이며 사립대학들의 년등록금은 평균 8 300US$로서 그전해보다 20% 오른것으로 하여 학생들의 부모들속에서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1 회의 종합의료검진을 받자면 100-400US$, 하루 입원비는 8-9US$, 큰 병원들의 하루 입원비는 100-300US$에 달한다. 20 대의 10 만명당 101 명, 70 대 이상의 10 만명당 284 명이 결핵환자로서 남조선은 《결핵으로 기침하는 나라》로 비난받고있다.

부자들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데 수백만 US$를 탕진하는 반면에 일반대중은 제때에 치료를 받을수 없는것으로 하여 온갖 질병이 만연하고있다.

부유한 가정의 자식들은 매달 500US$를 들이며 전문 학교들에서 과외수업을 받고있는 반면에 120 만의 가난한 어린이들은 학비를 댈수 없어 품팔이를 하고있다.

돈에 의하여 지배되는 자본주의사회들에서 보편적인 자살은 미제의 식민지 남조선에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자살률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있다.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2016 년에 12 407 명이 자살하였거나 36.7 명의 사람들이 매일 자살하고있다.

이 수자는 439 명이 자살한 2006 년에 비하여 훨씬 많은 수자이다.

지난 5 년간 남녀자살자분석은 65 대 70 으로서 매해 녀성자살자들이 현저히 늘어나고있다.

녀성자살자수는 2003 년의 3 871 명으로부터 2007 년의 4 617 명으로서 지난 5 년간 19.3%나 늘어났다. 자살동기가운데서 비관이

46.7%(31 002명)으로서 가장 많으며 나이별로 본다면 40대의 중년자살자들이 23.2%(15 454 명)으로서 가장 많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자살은 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의 산물이다.

남조선에는 낮은 결혼률과 같은 다른 문제점들도 있다.

남조선의 문화는 완전히 부패타락한 문화이다. 남조선은 문화오물장으로 전세계에 알려졌다. 남조선의 모든 문화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문화의 복사판이다. 남조선문화의 퇴페의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강남식》이다. 어느 한 닉명의 작가는 남조선문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섰다. 《내가 남조선에서 살 때 나는 세뇌되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밖에 보지 못하였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파쑈적인 광란에 빠져있었고 외곡되고 가짜로 일관되고 착취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선전에 속고있었다. 사회를 지배하는 <재벌>들을 비대시키는 <경제적기적>신화는 사람들의 정신을 상품화시켰다. 정통파 그리스도교도가 퍼뜨린 정신적질병은 무비판적인 숭배자들, 신조와 도상학적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였다. 교회와 단체문화사이의 차이란 존재하지 않고있다. 성적으로 심술궂고 탐욕스러운 정위주의자들의 무자비한 권력시위는 전면적으로 그리고 주저없이 미국엘리트들의 추구에 복무하고있다.

해방시키겠다는 인민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 아이비리그장학금을 받는 대가로 교회지도자들이 국교회의 재정력에 대한 공헌을 최대화하고있다. 회사와 기업우두머리들은 성무역에 다시 상표를 붙이고 불균형적으로 높은 청년실업(남조선에서 대학졸업생의 50%가 일자리를 찾을수 없고 또 포기하고있다)을 통해 신대원모집을 꾀하는것으로(미국군부와 엘리트들의 지배로 나타난)성적으로 렬등한 련합체들을 달래고있다. 파시스트제도의 꼭두각시들은 재벌들이 자금을 댄 현대하부구조, 유라시아외과기생, 상품

포장과 자극,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문화적으로 따돌림당한 인민들에 대한 한수 더 뜨기로 초래된 기업구락부사회에 대한 조선인민들의 배신과 사회적병폐들을 감추려하고있다.

이러한 착취는 남조선남성들을 외국인들과 자기 사람들 호상간에게 고용되게 하며 또 그들을 타락과 무기력으로 몰고가 파시즘하에서의 남성의 호상작용의 문화적기준으로 서로 싸우게 하고있다. 녀성들은 부정문화의 최대의 예봉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녀성들은 동남아시아어린이매춘업의 가장 큰 소비집단으로 되였다. 국내 폭력과 악습은 날로 늘어나고있으며 인구수는 줄어들고 고령화가 촉진되고 나이많은 독신녀성들은 특별히 피해를 입기 쉬운 집단으로 되였다. 파시스트적인 <성적우월성>의 간판하에 성산업을 위한 남조선녀성들의 국제무역은 활성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문화는 남조선이민들이 지배적인 백인제국주의위성지역으로 밀려들게 하고있다. 그리스도교와 자본주의는 이러한 이주통로를 도덕적 및 물질적진보로 선전하고있다. 사실상 미국과 이전 영제국 국가들의 경우에 조선이민들은 정치일괄재부전용과 국내식민지강탈과 착취로 되고있다.》

우의 글은 비참하고 완전히 타락한 남조선사회, 미국의 식민지로서의 진상을 보여주고있다.

내부의 사회계급적모순, 인민적악정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질식할듯한 강점으로 하여 붕괴에 직면하고있는것은 바로 남조선이다.

영국의 어느 한 수상이 《순수한 자주권》이라고 하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강하고 전투적인 반제자주성으로 하여 잘 알려졌다면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가장 의존적이며 신식민주의적인 나라이다. 미국과 일본에 예속된것도 모자라 미친 박근혜년은 남조선을 유럽동맹과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제국주의, 지어는 브라질에까지도 예속되게 하려 하였다.

# 제 4 장. 주체조선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자

주체조선을 적극 지지하고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진보적인류앞에 나서는 공동의 투쟁과업이다.

지난 기간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주체조선에 대하여 따라배우고 널리 해설선전함으로써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 이바지하였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주체조선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널리 선전하여 진보적인류를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새 사회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적공세가 집중되는 류례없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의 과학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여왔다.

특히 그들은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광범한 인민들을 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고귀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주었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주체의 기치, 선군의 위력으로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조선인민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였다.

2017 년 4 월 15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 돐을 맞으며 세계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조직진행되였으며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뜨겁게 표시하였다.

2016년 1월 수리아에서 첫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가 조직된데 이어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전국적 또는 개별적정당, 단체 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였으며 그 수는 국제 및 지역준비위원회들까지 포함하여 70여개에 달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태양절경축행사들이 다채롭게 진행되는 속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 국가, 정부수반,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이 축전을 보내오고 라오스, 캄보쟈, 팔레스티나, 나이제리아, 적도기네국가수반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으며 베네수엘라에서는 그이께 훈장을 수여해드리였다.

평양에서 진행된 제28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는 5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1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는 주조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부성원들을 비롯하여 807명의 외국인들이 참가하였으며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118명이 참가하여 경축행사 전과정을 그대로 전세계에 보도하였다.

주체조선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는 2017년 5월과 6월에 더욱 높이 울렸다.

5월 25일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영국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괴뢰대사관앞에서 진행되였다.

영국신공산당,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시위에서 진행된 연설에서는 지금 미행정부가 항공모함을 비롯한 각종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들여 조선을 위협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도발소동에 과감히 맞서싸우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즉시 철회하

고 조선반도에서 침략무력을 철수시켜야 할것이다.

시위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발을 흔들면서 《조선은 하나다!》, 《조선에 대한 제재와 전쟁소동을 중지하라!》, 《양키는 제 집으로 돌아가라!》등의 구호를 웨치며 행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5월 26일부는 조선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성공과 관련하여 쓴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만주 라뜨나 사끼야의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얼마전 조선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을 실전배비하기 위한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연해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물론 유엔까지도 조선의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잘못된 대조선정책을 바로잡아야 하며 더이상 조선을 위협하거나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조선인민앞에 굴복할 날은 꼭 올것이다. 조선이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것은 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미국의 전직교수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102명의 국제평화활동가들이 5월 16일《싸드》배치를 철회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할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의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싸드》는 조선의 미싸일을 요격할수 없다는것을 미국도 인정한 상태라고 하면서 《싸드》를 조속히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실패하였다는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여야 한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미국의 트럼프행정부와 남조선당국이 평화를 념원하는 세계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적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조선의 자위적국방공업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터쳐올린 승리의 포성에 당황망조한 적대세력들이 비렬한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이 6월 5일에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핵무력강화를 위한 조선의 탄도로케트발사를 걸고드는 《제재결의》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해낸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천만부당하고 불공평한 처사는 <안전보장리사회>가 <불안조정리사회>로 되여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제 마음대로 세계를 우롱하며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탄도로케트를 발사해도 되지만 조선은 하면 안된다는것이야말로 이중기준의 극치이며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이다.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살인방화를 일삼으며 제멋대로 날뛰는 미국은 눈감아주고 조선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에 대해서는 한사코 걸고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롱락물로 전락되였다. 조선이 틀어쥔 정의의 보검은 적대세력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건 가차없이 짓뭉개버릴것이다. 그 어떤 제재로도 조선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미국과 그 주구들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6월 6일 우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는 그 어떤 제재압박속에서도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전진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조선인민의 항일혁명전쟁에서의 보천보전투승리는 그들의 반제자주정신과 불굴의 기개를 과시하였으며 세계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준것으로 하여 오늘도 국제사회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2017 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친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지금으로부터 80 년전에 있은 보천보전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보천보전투승리에 토대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대부대의 국내진공작전과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대대적인 군사적공세에로 넘어갔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의 종말을 예고하고 해방의 려명을 알리는 계기로 된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세계피압박근로대중에게 크나큰 고무로 되였다.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적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영원한 영광을 드린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도 보천보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으며 일제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보천보의 총성이 새겨준 혁명의 진리, 선군의 진리는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오늘도 깊이 간직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이끄시고 주체적인 유격전법으로 보천보의 적들을 보기 좋게 소탕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투가 끝나자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며 그들을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보천보에 타오른 불길은 조선에서 일제를 때려부시고 착취와 억압이 없는 인민의 새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길을 밝혀준 휘황한 등대였다. 그날의 보천보의 불길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반제투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조선에서 오늘도 활활 타오르고있다.》

6월 15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련대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영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 진행된 연설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과 광란적인 핵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는 완전파국상태에 처하였으며 조선반도의 통일애국위업은 엄중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하였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지배를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며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바라는 영국의 진보조직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련대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결성식에서는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전쟁책동의 중지와 남조선주둔 미군철수,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며 북과 남, 해외 전체 조선민족의 조국통일투쟁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성원하고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정당, 사회단체들과의 련대련합을 강화할데 대한 위원회의 활동계획이 발표되였다.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은 미국은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일삼아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아시아와 전세계를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전쟁력사상 처음으로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국은 체질적인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저들의 침략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외면하고있으며 해마다 대규모침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지난 조선전쟁의 치욕스러운 참패를 되풀이하는 자멸행위로 될것이다.지금 조선의 위력은 그때와는 비할바없이 강하다. 미제호전광들은 이에 대해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사회주의조선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 1950년대 미국과 싸워 승리한 조선은 앞으로도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김정은**각하께서 이끄시는 조선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있다고격찬하였다.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의 조선은 1950년대의 청소한 나라가 아니다. 조선은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이며 막강한 국방력을 가진 군사강국, 핵강국이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끝끝내 불질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침략과 전쟁의 원흉, 악의 소굴을 송두리채 없애버릴 멸적의 의지에 넘쳐있다. **김정은**각하께서 계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6월 25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이 꾸바에서 개막되였다.

개막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개막식에는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꾸바 제인민간의 친선협회, 꾸바-조선친선가금원종장의 일군들과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은 미제가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킨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한목숨바쳐 싸웠다.

1953년 7월 27일 미제는 저들의 침략력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조선정전협정에 수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조선인민은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꾸바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이것만 보아도 주체조선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지지와 련대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1-2달이라는 기간은 력사에서 그야말로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1-2달사이에 주체조선을 옹위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고 련대하는 진보적인류의 목소리는 대륙과 대양을 넘어 세계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졌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다.

2017년의 5월과 6월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울려퍼진 조선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를 놓고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칭송, 그이께

서 이끄시는 주체조선, 인민조선에 대한 지지성원의 벅찬 현실을 엿볼수 있다.

세계혁명적인민은 주체조선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인류의 자주위업을 줄기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있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와 사회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조선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인류의 자주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들을 적극 탐구동원하고 언론, 출판,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주체조선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벌려야 한다.

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주체조선을 옹위하고 그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를 높여나가는 성스러운 위업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이여!

주체조선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자!

이것은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다.

# 결 론

많은 제국주의학자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그 오유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른바 붕괴에 관한 의혹적이며 낡아빠진 사상을 다시 내놓고있다. 최근 블름버그는 북조선의 《불가피한 붕괴에 대처한 준비》에 대하여 떠들어댔으며 프랑스의 어느 한 학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꼭 이전 쏘련과 같이 붕괴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리론들은 물론 현실과 동떨어진것들이고 또 허황한 공상과 허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붕괴》를 보고싶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절한 생각을 대표할뿐이다.

사실상 제국주의자들과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부패한 지배계급과 남조선괴뢰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의 사회주의제도가 사라져버리기를 바라고있지만 그것은 한갖 꿈에 불과하다.

1991년 이전 쏘련에서의 그 유명한 8월정변(더 정확하게는 여러 쏘베트지도자들이 이끄는 쏘련국가비상위원회가 정권을 잡았다) 이후 나는 미제의 선전잡지 《뉴스위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겨울을 지낼수 있는 충분한 연료와 식량을 가지고있지 못할것이며 그로하여 1991 년말에 가서는 기필코 붕괴될것이라는 기사를 읽고 놀랐던 생각이 난다.

물론 이전 쏘련이 식량을 수출하는것이 아니라 수입하는것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전 쏘련에 식량의존을 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그것은 무의미한 소리였다.

그리고 또 1996년인지 1997년인지 소위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공화국에서 지금 식량이 고갈되여가

고있으며 그로하여 한달이내에, 아니면 몇달안에 붕괴될것이라고 나에게 말해주던 기억이 난다. 물론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91 년이후 25 년, 1996 년이후 20 년이 지난 지금까지 존재하고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3 일이나 3 달 또는 3 년후에는 붕괴될것이라는 《3-3-3 붕괴》론을 내놓았다. 물론 이것도 미제국주의자들의 무의미하고 그릇된 선전이였다는것은 증명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는 이전 쏘련의 사회주의와는 완전히 구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리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령도하시고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선군의 기치높이 전진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적원쑤들과 반혁명분자들의 책동과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제재와 봉쇄, 위협, 압력 그리고 파괴적인 책동에 대처해나섰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반동들이 이색적인 부르죠아사상문화를 우리 내부에 들이밀어 혁명대오를 변질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지만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온 사회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천만군민이 투철한 혁명보위정신과 견결한 사회주의수호정신을 지니고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거창한 변혁의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불패의 사상강국으로 위력떨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사상문화는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혁명적인 사상문화공세로 짓부시며 우리 내부에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변태적인 생활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째서 붕괴될수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전 쏘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된것으로 하여 론리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할것이였다고 말하고있다.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잘못되였다는 근거로는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이전 쏘련의 사회주의는 붕괴된것이 아니라 좌절되였으며 또 배신당하였다. 이전 쏘련은 단순히 붕괴된것이 아니다. 이전 쏘련은 배신자 고르바쵸브의 의식적인 행동에 의하여 파괴되였다. 이전 쏘련국가와 쏘련공산당을 해체하는 법령들이 통과되였다. 따라서 이전 쏘련의 실질적인 붕괴는 없었으며 제국주의자들(마가레트 태쳐는 한때 미하일 고르바쵸브에 대하여 그는 《우리와 손잡고 일할수 있는 지도자이다》라고 말하였다)과 결탁한 배신적인 수정주의자들에 의한 의식적이며 고의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리익을 제국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 수정주의자들에게 팔아먹으려는 내부의 역적들을 분쇄해버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3 년과 1956 년, 그리고 1967 년에 종파도당들을 격파청산하였다. 2013 년에는 현대판 종파도당을 청산하였다.

주체의 나라, 선군의 나라인 인민조선은 이전 쏘련도 아니며

또 이전의 동도이췰란드와 뽈스까, 마쟈르가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에 튼튼히 발을 붙인 자주적인 강국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는 그 누가 세워준것도 그 누구의 선사품도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절대로 붕괴되지 않을것이다. 주체의 나라, 선군의 강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력한 불변불패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1945 년부터 지금까지 근 71 년간이나 인민민주주의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오고있다.

동도이췰란드와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마쟈르, 벌가리아, 로므니아와 같은 사회주의나라들은 34-35 년간,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는 47 년간, 몽골인민공화국은 68 년간 존재하였다. 그레네이더와 같이 극상해서 4 년간 존재한 사회주의국가들도 있었고 제 1 차 세계대전이후 마쟈르와 바이에른에서와 같이 단명으로 존재하였던 쏘베트공화국들도 있었다. 아일랜드에서 리머리크쏘베트는 단 12 일간 존재하였다.

제국주의세계의 전례없는 적대행위속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끄떡없으며 이것은 주체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우월성,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그리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 인민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과의 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야 말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날로 강대해지는 힘에 제국주의가 공포에 떨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체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의 허위와

선전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나약성의 표현이다.

주체의 붉은 홰불을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고있는 주체조선은 만리마의 속도로 질풍쳐 내달리고있다. 새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인공지구위성들이 발사되고있으며 나라의 국방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있다. 주체조선은 미래를 향해 돌진해나가고있다.

주체조선의 인민들은 미래를 두려워하는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빨리 가닿으려고 한다.

영국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비관하고 현재를 경멸하고있다. 사람들은 과거의 안락하던 시기들을 추억하고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로임과 쉬운 사회부문의 직업들이 있던 1970년대의 《좋았던 흘러간 나날들》을 추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강한 가정생활과 도덕을 가졌던 시기의 일정한 안정을 가졌던 1950년대를, 또 어떤 사람들은 먼 과거의 영제국시대의 이른바 《영광》들을 돌이켜보고있다. 허나 영국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세계의 그 어느곳에서든지 공산주의자들이 지나간 이전 쏘련시기의 나날들에 대하여 추억하고있으며 쓰딸린을 동경하고있다. 많은 정치운동들은 과거에 대한 회향에 기초하고있으며 많은 경우 마음속에 그려본 과거에 준한것이다. 주체조선에서는 사람들이 과거를 돌이켜보는것이 아니라 누구나 나라의 미래를 힘차게 창조해나가고있다.

주체조선의 사회주의는 인민적인 사회주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이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좌우명이고 정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공론의 령도자가 아니라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기 위하여 농장과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포착하시고 즉석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주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문제들을 결정하는 정부의 활동을 이끌어주시는 활동적인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주체사상에 충실하시고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며 인민적시책들을 펴나가시는 정력적이고 강한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의 조선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할것이다.